

화승의 소리를 찾아서

LISTEN



눈을 감으면 세상이 들립니다.

Do Better Tomorrow

Tune in on H+ 2016

2016 Spring vol.42 2016년 3월 11일 발행

발행인	현승훈
글 · 사진	DBT 사람들
기획 · 진행	화승그룹 회장실 박동호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심일욱 하이미디어 P&I 기시윤, 이진우, 김지혜 (주)하이미디어 P&I(02-795-3364) 노은주, 심수희 NAVI STUDIO(02-511-7277) (주)하이테크컴 (주)두경프린텍 발행처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E-mail iwsim9025@hsrna.com
편집 · 출판	
디자인	
사 진	
프로세스	
인 쇄	
펴낸 곳	



화승인더스트리
화학영업팀
유승현 사우



승현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선배 말 잘 들어서 화승 잘 들어왔습니다

부경대 고분자공학과를 갓 졸업하고

화승인더스트리 화학영업팀에 21기 공채로 입사한 유승현.

공채 시즌, 대학선배가 다니고 있는 화승그룹에

유독 눈이 갔고, 선배에게 물어 물어 지원한 화승인더스트리에 합격.

신입사원 교육과 계열사 OJT를 마치고 화승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그는

잘 들어서, 잘 들어왔다고 한다.

고분자공학을 전공했던 그가 영업이란 직무에 매력을 느꼈고,

고분자공학과 영업이라는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 스스로의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소리는 소통이 되고 사람은 좋은 사이로 남는다

파도 소리를 가장 좋아한다는 승현이.

틈만 나면 광안리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에 자신을 맡긴다.

아델에서부터 저스틴 비버까지 빌보드 'Hot 100'의 노래를 챙겨 듣는다고.

운전할 때, 걸을 때, 쉴 때에도 팝에서 가요,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과 함께한다고 한다.

세계일주를 버킷리스트 첫 번째 목록으로 꼽는 승현이.

호주에서의 10개월, 짧은 연수에서 얻은 새로움의 에너지를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통해 세계일주로 이어보겠다는 것.

21기 동기들과 함께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화승사람이 되고 싶다는 승현이.

들어야 할 것도, 알려야 할 것도, 해내야 할 것도 많겠지만

결국 '소통의 에센셜'은 리슨(Listen)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길. 🇰🇷



和談

和承가족에게 드리는 3月, 현승훈의 화담

현승훈의 화담(和談)은

화승(和承)을 담는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회장님의 경영 실천 의지가
담긴 편지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국내외
전 계열사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룹과
그룹문화에 대한 평소
회장님의 견해가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2016 1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남을 위해 베푸는
복으로 2016년 진정한
여러분의 복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2월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화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역할

누군가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0대 때의 시간은 10km/h로 지나가고 20대의 시
간은 20km/h, 30대의 시간은 30km/h로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
례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어느새 뒤돌아보
니 이만치나 흘러와 있는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만
큼 뒤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되짚어 보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
짐을 다시금 해 봅니다.

한날 지인에게서 좋은 글귀가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삶의 지침과도 같은 글
귀 중 우리 화승가족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몇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움직여라.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무기력한 생활보다는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생각이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자신만의 즐거운 일을 만들어 생각만
으로도 미소 짓는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습니다.

세 번째, 모여서 남을 홍보지 마라. 모든 화의 근원은 입에서 비롯됩니다. 가볍게 한
말이 남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 매일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하라. 몸을 말끔히 정리하면 마음까지도 상쾌해
집니다. 맑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십시오.

다섯 번째,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다. 돈 때문에 사람 잃는 일은 없어야 합
니다. 돈 때문에 재산을 잃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좋은 책을 읽고 또 읽어라.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책으
로 배우고 행하십시오. 풍요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생활을 운택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먼저 모범을 보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하길 바라지 말고 본인
이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잠을 자라. 잠 속에서 축복이 열매를 맺습니다.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잠자기 전 좋은 기억만 떠올리십시오.

아홉 번째, 좋은 일을 기록하라. 훗날 그것은 행복 노트가 되어 입가에 미소 짓는 여러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것도 크게 기뻐하라. 가식 되지 않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쁨 일들이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화승가족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행복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을 위해 정진하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
씀드린 삶의 기본 지침들을 통해 사회뿐 아니라 화승에서도 다양한 세대를 잇고, 아우
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이어진 화승의 정신을 여러분의 선후배
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변을 격려하고, 모두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봄 향기 가득한 3월입니다. 좋은 나날 되십시오.

2016년 3월 1일

현승훈 *S. H. Hyun*

CONTENTS

2016 Spring Vol. 42

Open day

06 현승훈의 화담(和談)

10 Open Your Life || 공기와 공해 사이, 소리와 소음 사이

—

화승을 듣다

14 Sound Essay || 오늘을 만드는 화승의 소리들

22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화승그룹의 과거와 미래

28 화승을 들려줘 || 노래에 화승을 묻다

32 듣고 싶은 화승사람 || 가수가 아닙니다, 화승사람입니다

36 새로움을 들려줘 || 2016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 스케치

—

우리를 듣다

44 Photo Space || 음악이 흐르다, 공간을 채우다

50 Interview 1 || 〈뽀로로〉성우 이선

54 Real Talk || 말귀 못 알아듣는 당신을 위한 솔루션

Do Better Tomorrow

www.hwaseunggroup.com

58 잘 들어야 잘 산다 || 입에서 귀로, 귀에서 가슴으로

62 Interview 2 || 귀 전문 연구가 이순문

66 낭독의 기쁨 || 낭독으로 소통하라

72 Story Zip || 팟캐스트, 현대인의 취향을 저격하다

76 맛집 탐구 생활 ||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소리들

—

Hawseung Reports

80 With Project || WATA, 그리고 민들레 효과

84 화승에 이런 일이

① 2015 화승그룹 송년인사회

② “3.4℃, 더 따뜻해졌습니다”

③ “당신의 영화 관람이 환아들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88 그룹 뉴스

90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공기와 공해 사이 소리와 소음 사이

고마운 공기이거나
불편한 공해이거나

기분 좋은 소리이거나
귀 아픈 소음이거나

그것은 우리의 귀를
어떻게 열고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어떻게 여느냐의 문제

또한 우리의 가슴과
어떻게 교감하느냐의 문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화승의 이야기를,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사는 법을,
잘 살고 잘 듣는 법을. 🇰🇷

화승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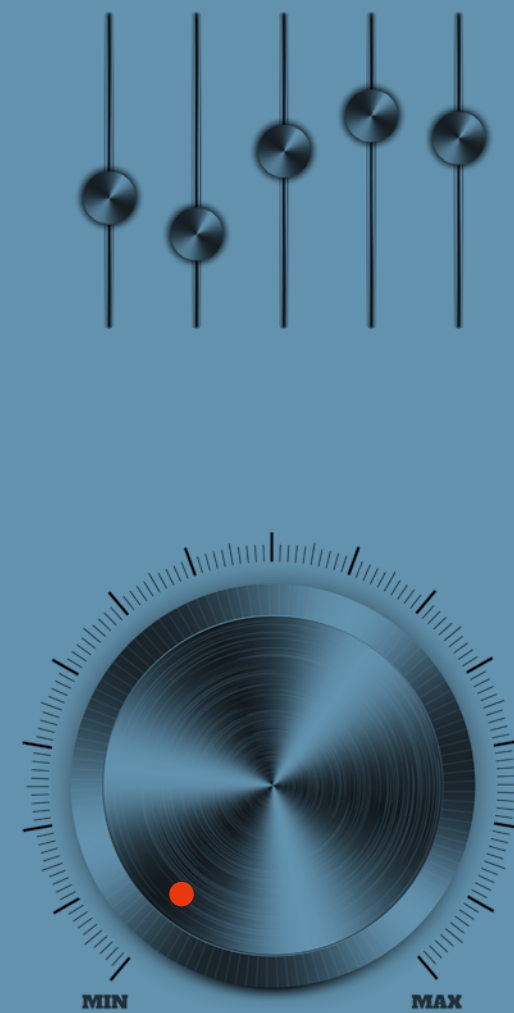
화승의 어제와 오늘,

화승은 그 안에서
수많은 소리와 함께
화승의 소리를 내며
세상과 소통해 왔습니다.

화승의 울림, 세상에 들림.
내일을 여는
또 다른 화승의 소리들.

볼륨을 높여보세요.
화승의 소리가 봄으로 빛날

오늘이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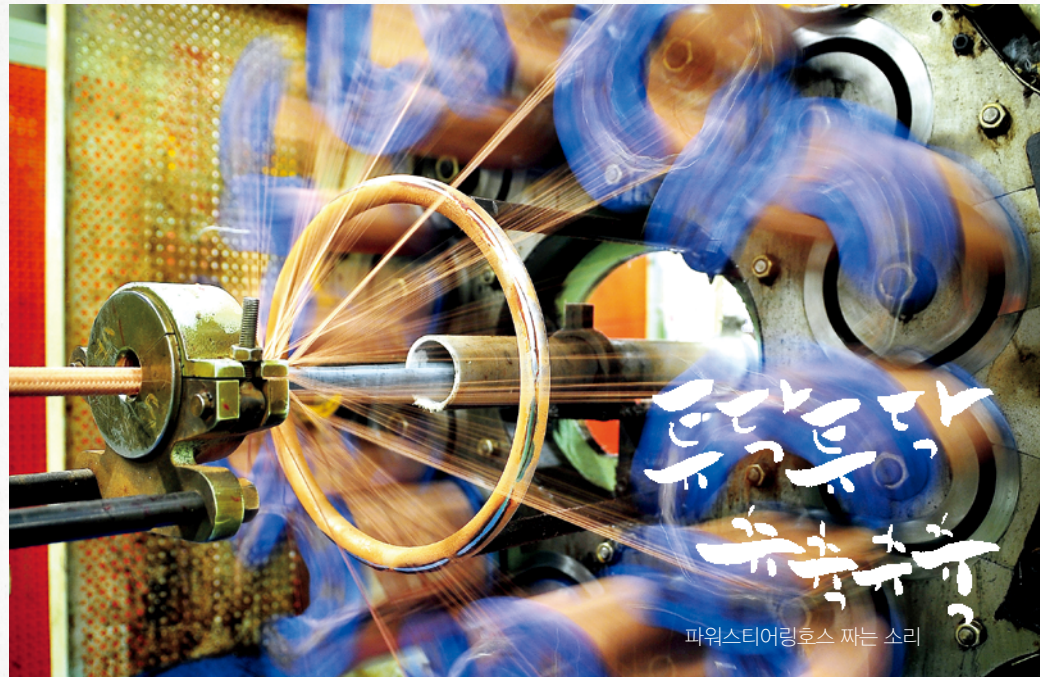


※ 화승의 소리를 더욱 생생히 전하고자 음성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을 만드는 화승의 소리들

화승그룹 안의 수많은 소리들. 이 소리들이 있기에 오늘의 화승이 존재하는 법.

화승그룹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 화승의 소리를 찾아 화승그룹 안에 담긴 마음을 살펴본다.



파워스티어링호스 짜는 소리

(주)화승T&C

화승T&C는 자동차부품 생산 회사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동차실내에 유입되는 각종 소음 · 누수를 막는 웨더스트립(Weather Strip), 운전자의 손쉬운 조향을 돕는 파워스티어링호스(Power Steering Hose)가 있다.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소리

수십 개의 나일론 실패가 재빠르게 회전하며 '튜닥튜닥튜닥튜닥' 소리를 낸다. 실이 뽀뽀 찰찰히 엮이는 소리는 '쭈쭈쭈쭈'. 영화 <스파이더맨>에서의 소리와 닮아있다. 파워스티어링호스 내연 튜브의 손상을 막기 위한 편조작업이다. 귀마개를 쓰고 작업장에 들어서야 하는 '소음'에 가까운 소리이지만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소리이다.

(주)화승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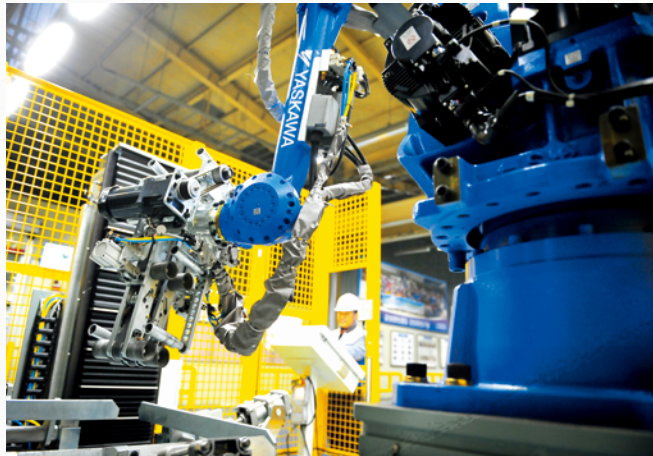
화승R&A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용 고압호스, 저압호스 및 웨더스트립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자동차부품의 국내외 높은 점유율은 물론 세계적인 위상의 품질로 정평이 나 있다.

최고의 품질을 확인하는 순간

브레이크호스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최우선이다. 검수 작업은 필수! 출지어진 플랫폼 각각에 브레이크호스를 삽입하니 얼마간의 정적 후 소리가 새어난다. '쭈이쭈이' 바람 넣는 소리와 '탕'의 금속음. 동시에 'OK'란 녹색등이 들어온다. 청명하게 울리는 '탕' 소리가 참으로 반갑다. 이것이 바로 안전을 약속하는 고마운 소리다.



브레이크호스에 이상이 없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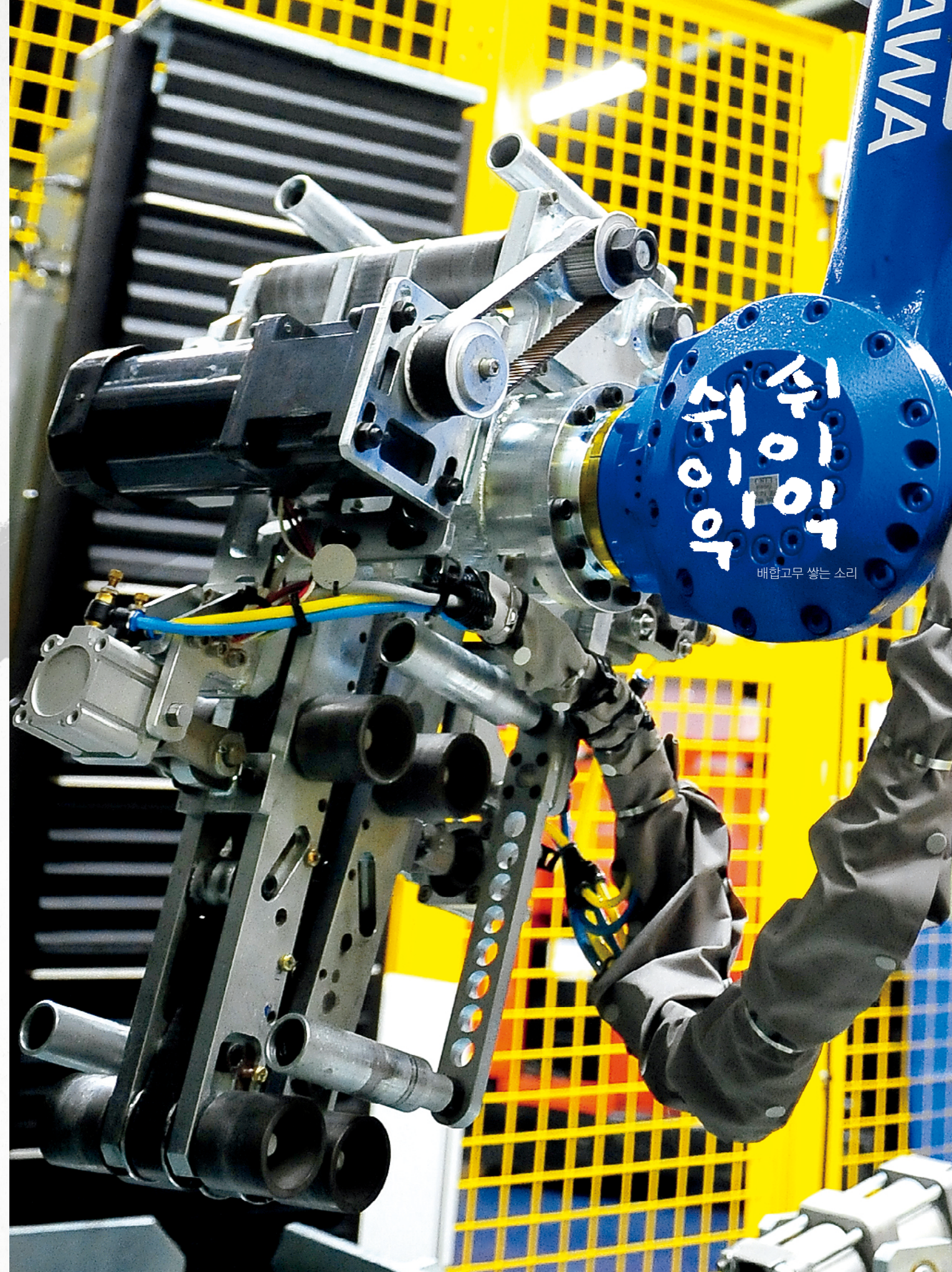


[주]화승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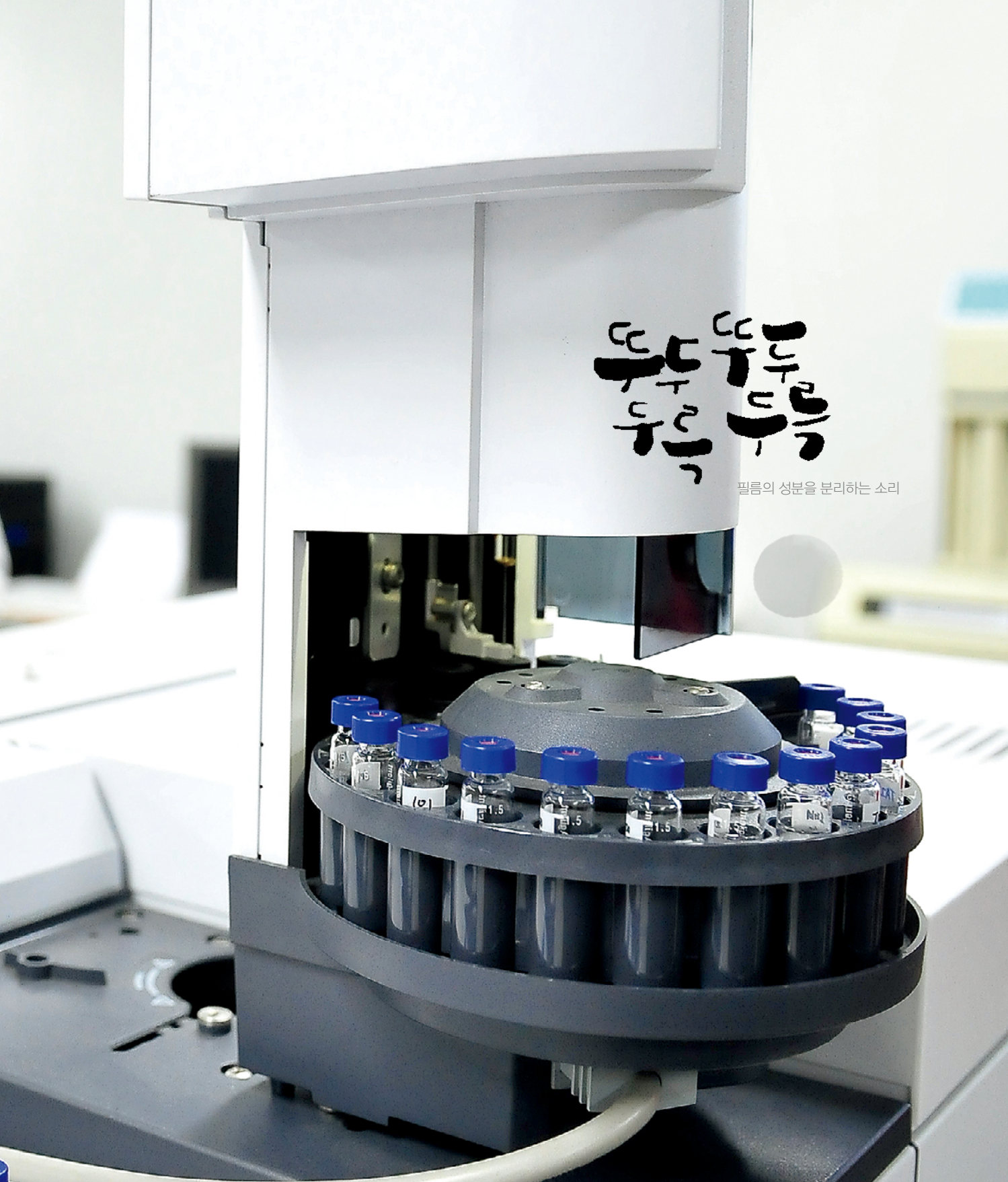
화승소재는 고무산업의 선두기업으로서 미래형 신소재 TPE, 실리콘 등 300여 종의 화합물을 개발 및 생산하여 자동차 용품, 가전 용품, 생활 용품 등의 생산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보다 빠르고, 보다 빈틈없이

화승소재 생산품 중 하나인 FMB(Final Master Batch), 고객사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합고무로 최근까지는 사람이 일일이 적재하여 납품했다. 쉬지 않고 허리를 숙였다 급혔다를 반복하다 보면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어들고 만다. 그러나 지난해 적재 로봇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쌓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지그재그 움직이는 로봇 팔, '쉬이익 쉬이익' 소리를 내며 보다 빠르고, 보다 빈틈없이 FMB를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렇게 쌓인 FMB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고무 관련 완제품으로 재탄생된다.



배합고무 쌓는 소리



뚜두뚜두
뚜두뚜두

필름의 성분을 분리하는 소리



(주)화승인더스트리

화승인더스트리는 식품 · 문구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필름부터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필름을 생산한다.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삶에 편리를 더하고 있는 필름들, 화승인더스트리는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인류의 생활을 더욱 운택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고객 만족’을 위한 또 하나의 화음

작은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정도로 고요한 중앙연구소 기기분석실. 기기분석실은 다양한 종류의 필름에 함유된 무기물의 성분과 양을 분석하는 곳이다. 기기분석실의 장비는 총 50여 대, 각각의 기계가 제 몫을 다할 때 분석실의 적막은 깨진다. 뚜두뚜룩, 뚜두뚜룩, 흡사 카메라 필름을 감는 소리와 유사한 음을 띠는 기기는 불량 필름의 성분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기화를 통해 샘플 안의 여러 물질을 분리해 그 양과 성분을 밝혀낸다. 이는 불량의 원인 추적을 돕는다. 기기분석실의 우수한 장비와 연구진의 꼼꼼함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도 분석 의뢰를 해온다. 보다 완벽한 필름의 탄생을 돕기 위한 또 하나의 소리, 화승인더스트리의 수많은 소리와 화음을 이루며 ‘고객 만족’이라는 선율을 만들고 있다.



HWASEUNG VINA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화승비나는 아디다스와 리복 브랜드의 세계 최대의 신발 ODM 공장이다. 아디다스 그룹의 최고의 파트너로서 개발, 생산, 마케팅, 디자인 등 모든 부서를 집약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공장이다.

사람의 심장과 기계의 기술이 만날 때

긴긴 겨울 밤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시절 드르륵거리는 재봉틀 소리는 어머니의 자장가였고, 창작의 또 다른 소리였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한 켄레의 신발에 담아내던 그 드르륵 소리가 이제 머나먼 베트남 땅에서 신발의 미래를 재현하고 있다.

사람의 심장과 기계의 기술이 만나 인체공학적인 신발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Shoes Factory 화승비나. 내일을 앞서 만드는 신발의 미래! 화승비나는 세상의 모든 신발을 위해 달린다. 기계화된 재봉틀을 돌린다. 그 희망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화승비나의 앞선 재봉틀은 잘도 돌아간다. 화승비나의 자동화된 Computer Stitching으로 더욱 빠르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간다. 



드르륵드르륵

컴퓨터 재봉 소리

화승그룹의 과거와 미래, 화승 안에서 소통하는 법

화승그룹 현지호 총괄부회장은 지난 1월 13일 '2016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에서 화승그룹의 과거를 돌아보고 화승그룹의 비전을 밝혔다. 현지호 총괄부회장의 구술을 바탕으로 화승그룹이 구성원들에게,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했다.



Fly High HWASEUNG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곳에 화승그룹이 함께합니다

1950~1979

동양고무공업(주) 설립(현 (주)화승)

풍영화성(주) 설립(현 (주)화승인더스트리)

(주)대보 설립

(주)동양항공 설립(현 (주)화승R&A)

1980~1999

(주)장천 설립

성장섬유 인수(현, 화승T&C)

동양인도네시아(PT TYI) 설립

화승홍콩 법인 설립

부천공조 인수(현 (주)화승공조)

(주)화승소재 설립

HSI AUTO(화승인도) 설립

2004~2006

독일사무소 설립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 설립

(주)화승네트웍스 설립

HSNA(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 설립



2000~2003

HST(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 설립

HSVINA(화승비나베트남 법인) 설립

HSLS(화승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HSAA(화승미국앨라배마 법인)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 설립

2007~2009

(주)화승엑스월 설립

화승미국디트로이트 사무소 설립

HSVN(화승베트남네트웍스) 설립

HSMI(화승소재인도) 설립

HVT(화승봉타우) 인수

2010~2016

HSNI(화승인도네트웍스) 설립

HSP(화승태양능재료(태창)유한공사) 설립

HSTR(화승터키) 설립

HSAM(화승멕시코) 설립

HSAA(화승앨라배마) → HSAH(화승아메리카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HSAA(화승앨라배마) 분할 신설

HSAU(화승USA) 분할 신설

HSAB(화승브라질)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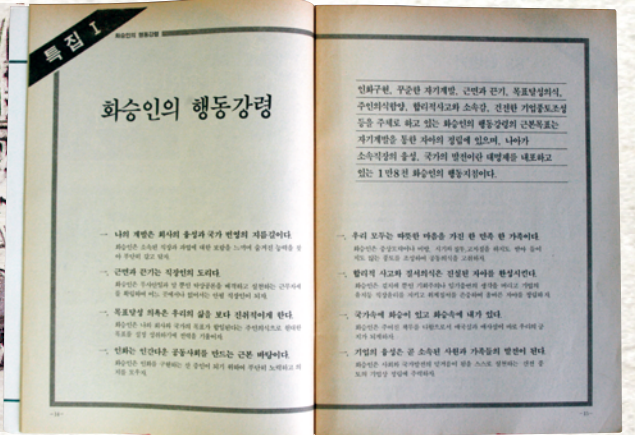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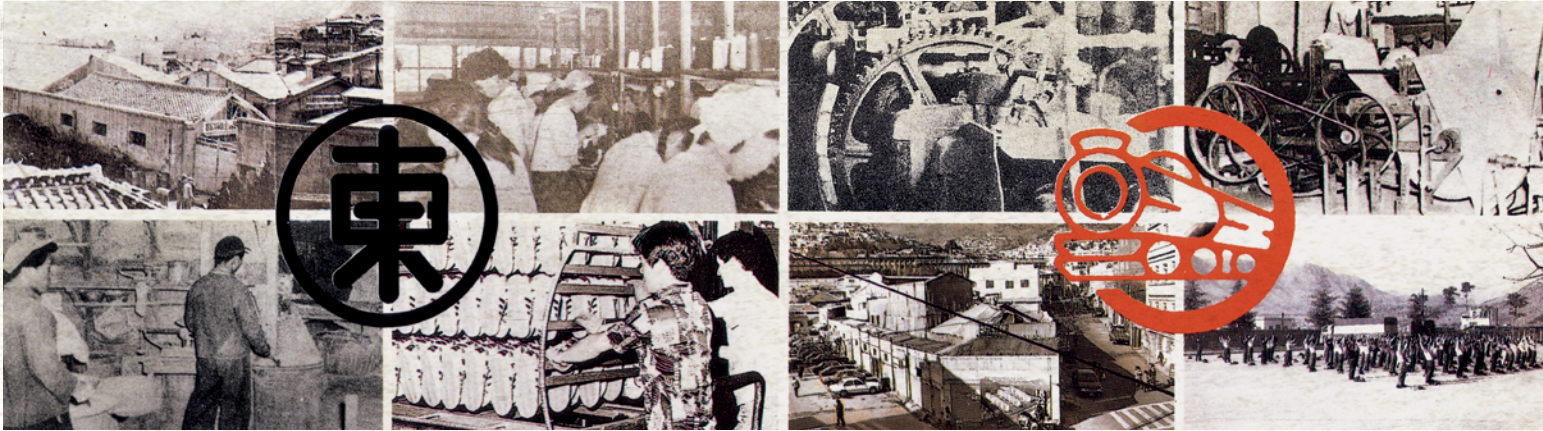
HSTN(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 설립



불모지에서 꽃피운 기술,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들

화승그룹은 1953년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 설립을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는 현수덕, 현수창, 현수명 세 형제가 법인체를 만들어 부산 초량동에 세운 기업입니다. 사실 세 형제는 이보다 일찍 서울에서 고무 관련 사업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고무배합기술은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에겐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선대회장께서는 어렵사리 최고의 기술을 지닌 재일동포 배합사를 일본에서 모셔와 합성고무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고무는 자동차, 자전거 허 타이어 등 폐고무 일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화공품을 배합해 필요로 하는 물성을 얻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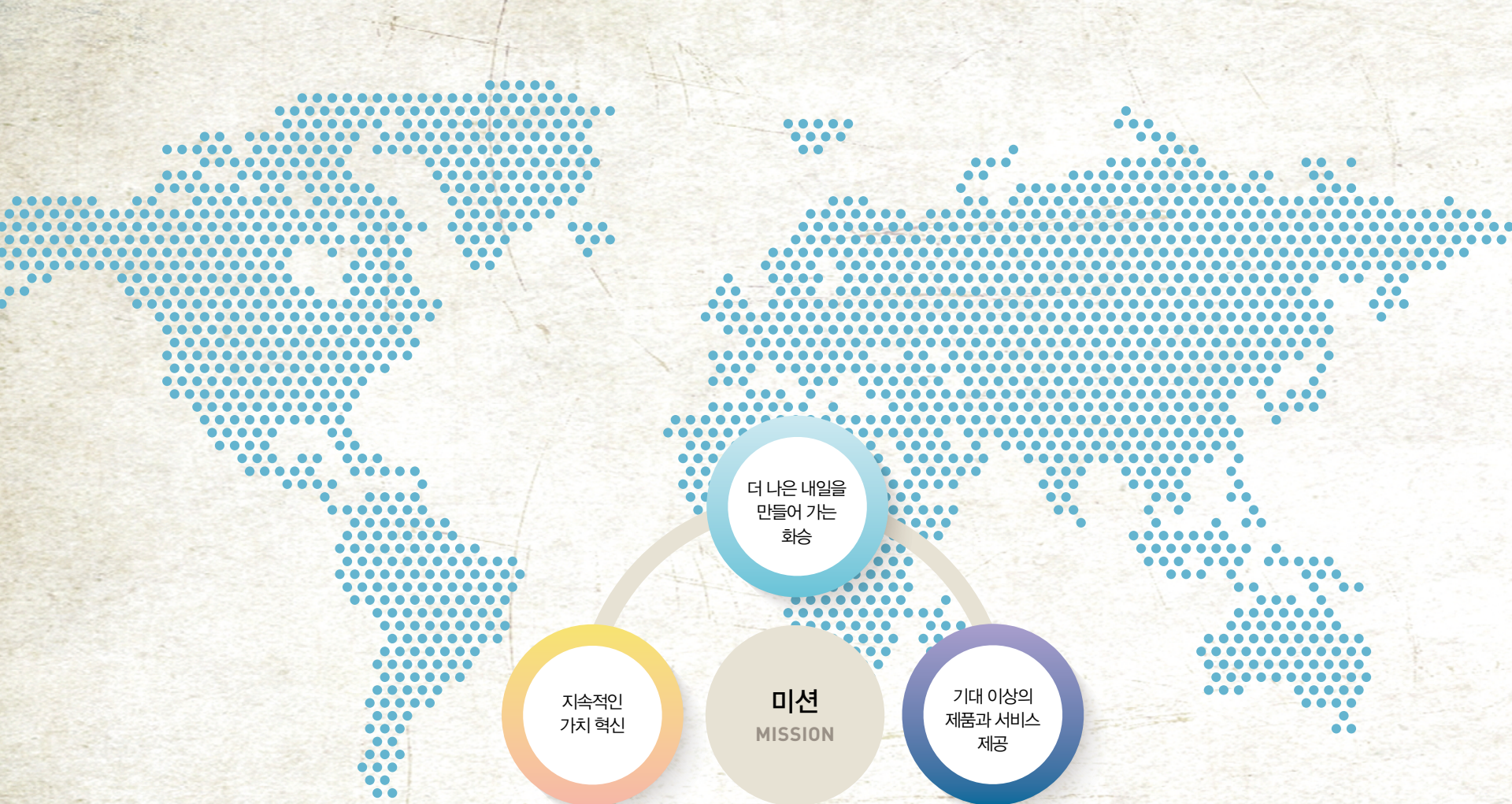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로 이를 해낸 것이 우리 화승그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고무신입니다. 배합을 통해 소재를 만든 것은 우리 화승그룹의 첫 번째 사업이자, 화승그룹이 63년째 해온 일이자, 지금 화승소재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승그룹을 신발을 모태로 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등으로 그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뒤 폐허에서 소재 기술을 꽃피웠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왔습니다. 지난 60여 년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과 다름없습니다.



인화(人和), 인심이 화동하여 합함은 인간 삶의 근본

“인심이 화동하여 합함은 인간 삶의 근본이다. 이의 꾸준한 연속이 가정과 회사와 국가 발전의 첨경이기에 우리는 회장님을 구심점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그룹의 명칭을 ‘화승’이라고 한다.” 1980년 주식회사 화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의 현수훈 회장님이 이 내용을 우리 그룹이 가져가야 할 경영이념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배합사’분을 ‘아저씨’라 부르곤 하셨습니다. 제게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는데, 그 일화는 화승그룹의 경영이념인 ‘인화(人和)’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선대회장님께서서는 배합사 아저씨를 애지중지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집이 공장이자 기숙사였다고 합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식사를 하며 식구처럼 지냈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직원으로 구별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지고 확연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장도 직원도 같은 밥상에 모여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현재 화승그룹의 임직원은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 규모와 모양은 달라졌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화승’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는 ‘마음’은 같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화’라는 경영이념은 아주 오래 전, 선대회장님이 다졌던 초석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은 언제나 현재진행형

‘지속적인 가치 혁신, 기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화승, 모든 고객이 즐겁게 다시 찾는 화승’. 이는 화승그룹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존재 이유인 ‘미션’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가치 혁신은 성장의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셋째,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화승은 어느 한 주체만의 행복이 아닌 화승그룹의 구성원, 협력업체, 주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모든 고객이 즐겁게 다시 찾는 화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화승그룹에 절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미션은 한 순간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화승그룹이 63년째 이끌어 온 정체성이자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이 미션을 바탕으로 한 화승의 도전은 늘 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
‘기존사업성과 극대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로 글로벌 No.1 기업’이라는 화승그룹의 비전 ‘Fly High 2020’ 실현을 위한 원동력은 이미 화승그룹의 역사와 이야기 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화승 안에서 소통하는 법

개인의 생활과 조직의 생활은 다릅니다. 조직에는 직급과 계층이 존재합니다. 상사의 지시가 내려오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지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직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보다는 내 생활과 그동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는 환경 자체를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라고 이해하는 노력이 바로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저는 다이어리 첫 장에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을 써둡니다. 조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하여 상대방이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등 이분법적 잣대로 구분하여 지시하거나, 혹은 복종한다면 소통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왜 그러지’에 대한 탐구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화승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은 실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인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결실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상대방에 대한 유연한 자세로 좋은 화승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에 화승을 묻다

기업마다 그 기업의 길을 담은 노래가 있다. 잘 모르셨으리라. 화승에도 그런 시대를 담은, 지금을 담은 노래가 있다는 것을. 동양고무에서 화승이란 이름으로 거듭났던 1980년, 출근길을 밝혀주던 빛 소리다. 그 노래는 2002년, 전 임직원의 공모를 통해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2005년 그룹홍보영상을 제작하며 만들었던 그룹송까지. 지금 가사를 먼저 읽고, 가슴으로 노래를 느껴보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그 노래를 리슨해 보라.

응답하라 화승 1980

백양산 정기 받아 일어선 우리
정직하고 성실한 굳센 의지로
실천 제일의 약진 기업으로
쫓아올랐다
새 시대의 앞선 화승
우리의 기업
화승인의 꿈의 결실이
오대양으로 퍼져
세계 끝까지 즐기치게 뻗은
화승그룹



응답하라 화승 2002

찬란한 아침 해는 우리의 희망
우뚝 선 인화봉에 우리 하나 되어
흐르는 저 강물은 화승의 물결
굽이쳐 흘러가서 한 곳에 모이면
그 곳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
너와 나 손 잡고 땀 흘리는 우리의 일터
지혜와 끈기로 인화꽃을 피워보세
하나된 화승 세계로 뻗어
넓은 세상 헤쳐가자 우리는 하나



SECOM
1688-3112
[주]화승
HWASEUNG

응답하라 화승 2005

느껴보세요 더 큰 행복을
바라보세요 더 큰 미래를
당신이 꿈꾸는 것 모두 여기에
Do Better 당신과 함께라면
Do Better 더 나은 미래 위해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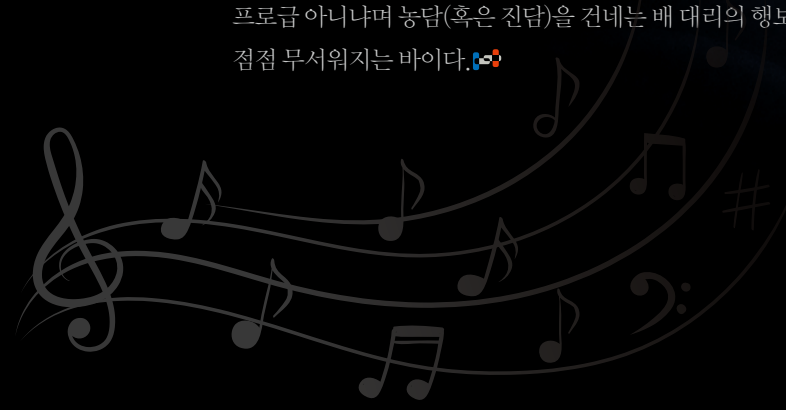
가수가 아닙니다 화승사람입니다

“노래를 잘 하거나 잘 하고 싶으신분 모집합니다”
이번 코너의 사내 참가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냈다. 그리고 주재기자를 통해
참가의사가 있는 직원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누굴까 너무 궁금해 메일을
클릭한 순간 걱정이 눈앞을 가리기 시작했다. 이번 코너의 참가자는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화승사람이었다. 열정 가득, 유쾌 가득은 물론
조금 과도한 톨끼(?)로 유명한 이분.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분께서
화승그룹 대표 가수로서의 데뷔를 의뢰했다.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그 분은 바로 화승엑스일 벨트사업2팀 배상수 대리. 아니나 다를까, 녹음실로 이동하는 내내 실 새 없이 언변을 풀었다. 갑자기 목감기가 와서 걱정된다. 걱정이 되니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내 손 한번만 만져봐라 등등 DBT는 정작 노래하기도 전에 이분의 목이 지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허나 녹음이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그의 노래 실력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시 본인 목소리보다 노래가 잘 나오도록 최첨단 장비 같은 것을 쓰는지 확인까지 해봤다. 아니었다. 진짜가 나타났다.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긴다는 배상수 대리. 오늘 녹음실에서의 경험은 노래방에서 3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를 녹초로 만들었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H&S뮤직스튜디오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기념하고 싶은 노래가 있을 경우 쉽게 녹음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작은 음이탈 정도는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수 대리의 몇몇 실수는 편집으로 커버됐다. 그래도 가수에 버금가는 월등한 노래 실력 덕분에 편집이 쉬웠다는 후문. 완전 만족하진 못했지만 이 정도면 프로급 아니냐며 농담(혹은 진담)을 건네는 배 대리의 행보가 점점 무서워지는 바이다. 🇲🇵



2016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 스케치

당신이 빛나면
화승이 빛납니다

고객과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화승그룹의 새로운 희망들이 경주에 모였다. 2015년 수시모집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비롯해 화승그룹에 공개채용된 인원 총 81명은 지난 1월 4일부터 2주 동안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에 참가해 열정과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 화승이라는 무대에 첫 발걸음을 내딛은 화승그룹 신입사원 21기의 교육 현장 후기를 DBT가 들어보았다.





Q1.

교육기간 중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팀원들끼리 함께 모여
진행했던 신사업 전략 기획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화승그룹은 국내외 30개의 계열사와 법인
사무소가 있는 회사이다. 본인들이 입사
지원했던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잘 모를 수 있다. 회장실
교육팀은 화승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분야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아가
신입사원들은 각자 소속된 회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꿀꿀 뭉친 신사업을 제안하였다.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의
아이디어가 화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Q2.

교육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노인 시설에서 진행된 나눔활동을 통해 이웃과
동행하는 화승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승그룹 신입사원이라면 꼭 거치는 과정, 바로 봉사활동이다.
세계예술치료협회와 함께하는 와타 캠프, 백혈병소아암걷기대회,
화승 꿈틀프로젝트 등 화승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신입사원 입문교육 과정에서도 화승그룹의 나눔경영이 펼쳐졌다.
경주 나자레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서 신입사원들은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청소 및 재롱잔치를 하며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Q3.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뛰니 뛰니 해도 비주얼 퍼포먼스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비주얼 퍼포먼스, 댄스는 물론 뮤지컬, 레이저쇼, 심지어 붓글까지. 이번 퍼포먼스는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로 구성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힘들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새벽까지 이어진 연습으로 고생했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성취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도전의식과 끈끈한 동기애를 얻을 수 있었던 비주얼 퍼포먼스. 결국 81명이 하나된 본 공연은 내빈들의 감동 섞인 기립박수로 마무리 되었다.



Q4.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새벽 땀결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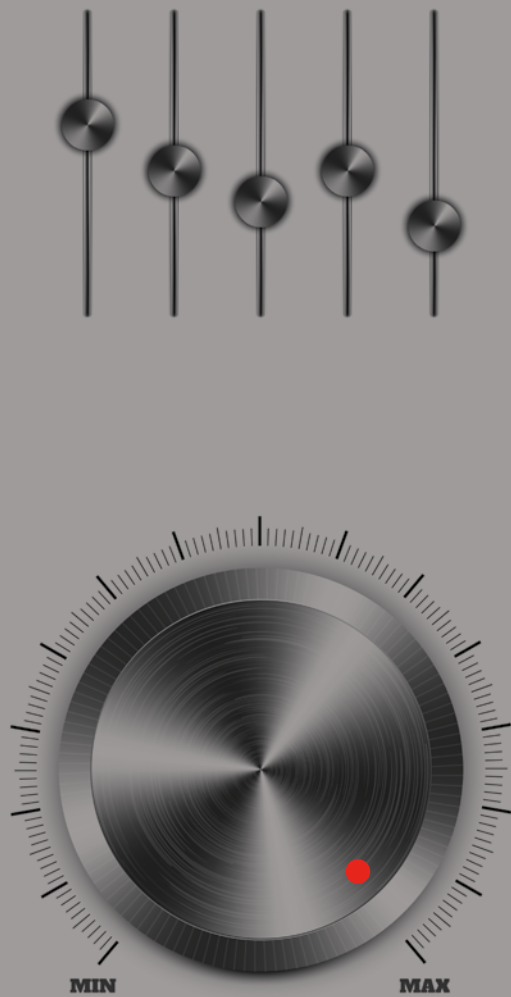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명도 빠짐없이 똑같았다.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스케줄은 빡빡한 것으로 유명한데 비즈니스 관련 강의는 물론 신사업 기획 회의나, 비주얼 퍼포먼스 준비나 어떨 때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신입사원들은 겨우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체감 수면시간은 약 3분, 순식간에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모자라 새벽의 차디찬 공기를 그대로 마시며 운동장을 뛰어야 하는 ‘지옥의 새벽 땀결음’은 교육 담당자도 혀를 내두른다. 결국 피곤이 극에 달해 예민해진 신입사원들의 귀여운(?) 항쟁 결과, 교육 수료일 아침은 땀결음이 없었다고 한다.



“작은 고무회사에서 시작된 글로벌 화승그룹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화승가족으로서 함께해주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현지호 총괄부회장은 수료식 격려사를 통해 화승직원 한 명의 발전은 곧 화승그룹의 발전이라며 인화를 중시했다. ‘당신이 빛나면 화승이 빛납니다’라는 2016년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슬로건처럼 단체사진을 남기는 81인의 눈빛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겠다는 굳센 의지가 담겨있는 듯했다. 🇰🇷





우리를 듣다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음색을 가진
악기와 같습니다.

각기 다른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에
리듬을 맞춰 화음을 이루듯

말하는 기쁨보다
듣는 고마움으로
더 큰 나를 발견하는 우리

나의 볼륨을 조금 줄이고,
오늘은 세상의 볼륨을 키워보세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봄 꽃망울처럼
톡톡 터질지도 모를 테니까요.

Photo Space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

음악이 흐르다 공간을 채우다

보이지 않는 것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공중에 유포하는 공기에 무게를 더하고 감성을 더하는
그것, 음악. 어떤 말도, 어떤 의미도 필요 없는, 오롯이
음악을 채울 수 있는 곳. 그 공간을 소개한다.

사랑은 음악을 표현할 수 없지만
음악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Editor 이진우 + Photo 류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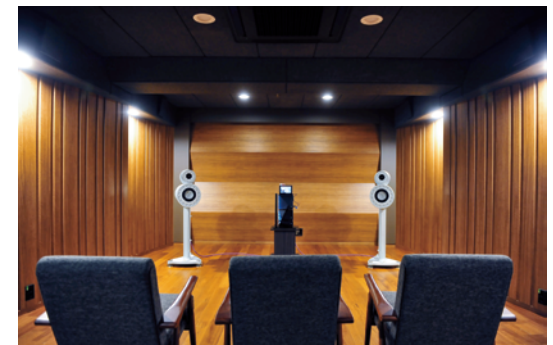


음악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 이태원 스트라디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뒤섞인 이태원 너머의 한 거리를 걷다 보면 세련된 듯 무게감 있는 스트라디움 건물이 보인다. 실내로 들어서면 벌써 음악을 안은 아늑한 공기가 몸을 감싸고, 이야기가 있는 음악들은 이곳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은은히 이어진다.

이곳의 음악 이야기는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아스텔앤켄(Astell&Kern)'과 최고 사양의 헤드폰을 통해 흘러, 현대 기술이 탄생시킨 최고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다. 1층 사운드 갤러리에는 주제에 따라 스트라디움 뮤직 큐레이터와 음악계 전문가가 선정한 음악이 '전시'되어 있어 음악을 듣고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마치 개인 서재처럼 나만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알코브가 마련되어 있다. 폭신한 쿠션에 등 대고 앉아 헤드폰을 끼면 시끄러웠던 세상과는 아주 다른, 나만의 음악 세계에 오롯이 빠져든다. 맞은편의 뮤직룸은 전 세계 하이파이 시장을 놀라게 한 아스텔앤켄 500N에서 나오는 음악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앉으면 그 공간에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든다. 2층 스튜디오에서는 시간대별로 라이브 공연이나 토크 프로그램 같은 유료 큐레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별 일정이 없을 경우 진행되는 스페셜 큐레이션은 입장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막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음악과 안정적이고 따스한 공간에 취해 계단을 오르면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커피와 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라운지가 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음악에 이끌리고 싶다면 이곳으로.





햇살, 커피, 그리고 음악 파주 헤일리 카메라타

한적한 헤일리 마을에 자리한 황인용의 뮤직스페이스 카메라타.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웅장한 클래식이 귀에 꽃힘과 동시에 감미로운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친다. 기둥 하나 없는 3층 높이의 넓은 공간에 클래식이 나긋하게 울려 퍼진다. 3층 위치의 작은 공간마저 목재를 하나하나 세워 어긋나게 붙인 후 와이어로 연결한 덕분에 허공에 띄운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 나무의 결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무덤덤한 회색 벽이 투박한 듯 섬세한 멋을 풍기는 가운데, 오전 11시 쯤 되면 마치 커튼처럼 벽을 훑어 내리는 햇살을 보는 것도 또 다른 묘미다.

카메라타에 들어서면 보이는 정면에는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씨가 컬렉팅한 장비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1920~1930년대, 가정에서는 음악을 듣기 힘들어 극장에 구비된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야 했던 그 시대에 미국과 독일에서 만들어진 장비들이다. 웨스턴 일렉트릭, 빅터, 빅오, 클랑필름 총 4조의 시스템이 카메라타의 공기를 지배한다.

이 공간은 방문한 사람들의 나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재미있다. 혼자 와 앉은 사람, 지나다 들른 친구들, 젊은 연인, 중년의 부부,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모두가 어우러진 그림이 꽤 보기 좋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맛있는 커피 한 잔과 음악이 마음을 채우는 곳, 바로 여기, 카메라타다.





음악을 전시하다 성북동 리홀 뮤직갤러리

성북동 맛집으로 통하는 누룽지백숙 1층 출입구 옆 3층으로 통하는 공간. 꽃과 잔디로 포근한 느낌 가득한 계단을 오르다 보면 바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피게 된다. 계단 끝에 다다르면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할 것만 같은 유리문이 손님을 반긴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몸을 압도하는 듯한 사운드에 한 번 멈칫,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운 LP판의 위용에 다시 한 번 멈칫하게 된다. 리홀 뮤직갤러리의 대표가 45년간 수집한 7만여 장의 LP와 11,000여 장의 CD, 5,500여 개의 카세트테이프가 하나의 인테리어로 자리 잡아, 그야말로 음악 속에 폭 안긴 듯한 느낌마저 자아낸다.

지구촌 최초의 오디오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웨스턴 일렉트릭 15A훈과 25A훈을 구축해 LP의 섬세한 소리까지 담아내고, 라이브 음악과 재즈, 가요 등을 위한 알텍 A2도 마련되어 있다. 라이브 공연 때는 여러 악기의 좋은 소리를 위해 TR(트랜지스터)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옛 장비의 온전한 소리를 위해 아직도 튜브 시스템을 고집하는 리홀 뮤직갤러리. 촌촌히 꽃힌 LP 앞 테이블에 앉는다. 전설의 명기라 전해지는 웨스턴 일렉트릭 1086C와 46C 앰프를 장착한 웨스턴에서 흘러나오는 ABBA의 〈Dancing Queen〉에 귀 기울이면 마치 1930년대 극장에 앉아있는 듯 마음 한 편이 울렁거린다. 🇰🇷🇺🇸



성우 이선

목소리 너머의 꿈

자신의 이름보다 캐릭터로 기억되는
목소리 연기자 성우(聲優). 25년차 성우
이선에게도 아이들의 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성우’라는 타이틀이 더 익숙했다.
빨강머리 앤으로, 하이드로, 줄리엣으로,
돌리의 또치로 목소리 뒤에 존재하며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해온 그녀가 2014년 성우를
넘어 영화배우라는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목소리 뒤에 감춰야만 했던 얼굴을 세상
밖으로 수줍게 내밀었다.



뽀로로를 숨 쉬게 하다

올해 우리 나이로 마흔 다섯.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스무 살, 틔릭 KBS 23기 공채 성우로 발탁되어 25년 동안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넘나들며 성우로 활약했다. 몇 년 전 〈뽀로로〉의 인기로 힘입어 더욱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그녀는 그 이전부터 성우로서 자신만의 확고한 자리를 만든 국내 간판 성우이기도 하다.

〈개구리 중사 케로로〉, 〈슬램덩크〉, 〈포켓몬스터〉, 〈로미오와 줄리엣〉, 〈빨강머리 앤〉 등 수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입고서야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그림을 보면 신기하게도 캐릭터 목소리가 바로 나와요. 뽀로로를 할 때 고글 쓴 아기 펭귄 그림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입 모양이 세모더라고요. 제 입 모양을 그림 속 뽀로로 입과 똑같이 만든 다음 ‘효효효효’ 웃음소리를 만들었죠. 뽀로로가 걸을 때마다



나는 소리는 우연히 아장아장 걸어가는 꼬마아이를 관찰하면서 만들게 됐어요. 아이가 걸을 때마다 뽉뽉 소리와 함께 빛이 나는 신발을 보고 뽀로로에 차용했죠.”

프로 성우로서 그녀의 근성은 캐릭터를 촘촘하게 창조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 뽀로로가 잠잘 때 입모양이 세모로 벌어졌다가 바르르 떨어서 닫히는 것을 보고는 ‘뽀’에 들숨을, ‘로로로로’에 날숨을 쉬어 뽀로로만의 숨소리를 만든 것도 이선의 뛰어난 관찰력과 캐릭터 창조 능력 덕분이었다.

연기에 미친 아이

경북 문경이 고향인 그녀는 중학생 때 남녀 성우가 시낭송 하는 대목을 연예인 패널들이 따라하는 TV오락프로그램을 본 후 성우를 꿈꿨다.

“성우가 되려면 서울예대(당시 서울예전) 방송연예과에 가면 된다는 소리를 풍문으로 듣게 됐죠. 가족의 반대를 무릎 쓰고 성우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서울예대에 들어가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기 수업을 받은 이선. 그때를 ‘내 운명이 결정된 날’이라고 회상한다.

“나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겠구나 깨달았어요. 길을 걸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글자를 소리 내 읽는 연습을 했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나름대로 스토리를 창조했죠.”

이선은 학창 시절 연습벌레로도 유명했다. 연습에 빠져 날이 어둑해지는데



것도 모르고 밤을 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노력 덕에 그녀는 1992년 KBS 공채 성우로 발탁된다.

“KBS에서 전속 3년을 마치고 프리로 전향하던 첫 해, 캐나다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된 〈빨강머리 앤〉의 앤을 맡게 됐어요. 당시 전무후무한 캐스팅이었대요.”

주인공이라는 중압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고된 연습과 스트레스 탓인지 쉼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상태가 되었다.

병명은 성대 결절. 최종 9부작까지 녹음을 마친 후 그녀는 1년 간 산속으로 요양을 떠났다. 1996년 알프스소녀 하이디가 되어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그 후 인생의 1순위 목표는 성대 컨디션 지키기가 됐다.

운명을 살다

1991년 연기 수업을 받으면서 운명처럼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던 그녀는 공채 성우 시절부터 방송국과 대학로를 오가며 연극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말대로 ‘연극은 곧 안식처 같은 작업’이었다. 속도감이 빠른 방송 시스템과 호흡이 차분한 연극은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었다.

몇 해 전에는 인도의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햄릿, 아바따〉라는 작품에서 햄릿의 어머니 ‘거투르드’역을 맡았고, 2014년엔 이상민 감독이 연출한 독립장편영화 〈짐작보다 따뜻하게〉의 여주인공 정은경 역을 맡아 호연했다. 〈짐작보다 따뜻하게〉는 2015 전주국제영화제 독립영화 장편 부문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2014년 4월 18일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여의도 공원을 산책 중에 독립영화 감독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어요. 자기 작품 속 여주인공의 직업이 성우라고 하길래 당연히 배우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출연을 해 달래서 깜짝 놀랐죠.”

그동안 성우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그녀였다. 찾는 곳도 많았다. 밥 먹고 전화 받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다 문득 목소리로 캐릭터를 형상화하고, 다채로운 목소리를 캐릭터에 입히는 과정들이 웬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허전함이 엄습했다. 가면 뒤에 감추었던 얼굴을 드러내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연기를 해보고 싶은 꿈이 꿈틀거렸다.

〈짐작보다 따뜻하게〉는 연기에 목말라 있던 그녀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결국 뽀로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잠정적으로 성우 활동을 중단한 그녀는 은경으로 살기 위해, 은경이 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은경이라는 인물로 채워나갔다. 맡은 역할 때문이었는지 촬영 내내 우울했고,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배역에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지금의 저는 뽀로로 성우로 유명할지 모르지만, 배우로는 무명에 가까워요. 이제 시작이죠. 성우와 배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막 뒤에서 연기하느냐, 막을 걷고 나와 연기하느냐 그 차이죠. 쉽진 않겠지만 배우 이선의 역할도 잘 해낼 생각이예요. 예전부터 배우가 되는 것이 제 운명이었으니까요.”

시를 낭송하던 중학생 소녀와 밤새 대본 연습을 하던 대학생 이선 그리고 배우로 전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성우 이선의 열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오히려 꿈을 향한 그녀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말귀 못 알아듣는 당신을 위한 솔루션

누군가 나에게 말을 던진다. 잘 듣고, 대답도 잘만 했는데 돌아오는 건
따가운 눈초리와 어이없다는 표정이라면? 뭐가 문제일까.
당신의 '눈치코치 없음'을 해결해 줄 속 시원한 솔루션.

영화 <내부자들>에는 참으로 많은 명대사가 넘쳐난다. 몇 개 꼽아보자면 “이런 여우같은 꿈을 봤나”,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그리고 “모히또 가서 물디브나 한 잔 하자.”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중 특히 인상 깊게 남는 것이 있으니 바로 “끝에 단어 3개만 바꿨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가 압권이었다. <내부자들>은 단어의 미세한 차이, 쓰임에 따른 그 미묘한 의미 변화로 재미를 더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보여진다.

이제 눈을 우리의 일터로 돌려보자. 직장에서도 이런 식의 미묘한 어감 차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찹찹 소리 내며 허겁지겁 밥을 먹는 부하 직원에게 상사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김 대리, 오늘 일 열심히 해서 배가 많이 고팠나 봐?”

문장 자체는 상당히 호의적이지만 그 안에 ‘밥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라’는 가시가 담겨있다. 직장 언어, 정말 어렵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비단 직장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남성분들이여, 혹시 이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전문용어로 ‘빼박켄트(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화난 이유를 안다고 하면 “알면서 왜 그랬어?”가, 모른다고 하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가 나올 것이다. 필자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이 질문에는 “나 지금 매우 화가 났으니까 빨리 풀어주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있었던 것 같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 하여 ‘말귀 알아듣기 프로젝트’다. 몇 가지 상황별 문장의 의미와 속뜻 그리고 대처 방법을 살펴보고 ‘곰 같은 여우’로 거듭나길 바란다.



1 상사의 농담은 농담이 아니다

[상황]

상사가 김 대리에게 이전에 맡겨둔 업무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업무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태평한 모습의 김 대리에게 상사가 다가와 말을 건넨다.

“김 대리 업무 처리가 여간 섬세한 게 아닌가 봐?”

속뜻: 그만 좀 놀고 빨리 가져와라.

오답: ‘네, 제가 업무 처리에 있어 좀 신중한 편입니다.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안 되겠습니까. 하하하’ 또는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정답: ‘죄송합니다. 서둘러 처리하겠습니다. 한 군데 걸리는 곳이 있어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사의 언어

- 신중하다 또는 섬세하다 = 느리다.
- 넌 다 좋은데 = 이제부터 너의 약점을 짚밟아주겠어.
- 확실해? = 못 믿겠으니 다시 확인해 봐.
- 빨라서 좋다 = 너무 대충하는 것 같네.

자, 해설을 시작한다. 상사도 사람인지라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는 싫다. 부하 직원을 무조건 꾸짖고 힐난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때 쉽게 취하는 방법이 “신중인가 봐”, “섬세한가 봐” 등으로 좋게 돌려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사의 농담은 농담이 아닐 수 있다. 혹시 상사가 무언가를 농담조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웃어넘길 게 아니라 ‘Why’를 생각해보아야 한다(LTE보다 빠른 GIGA의 속도로 생각하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무언가를 돌려 말하고 싶어하시는가? 이렇게 말이다. ‘Why’를 2회 반복한다면 그 속 뜻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회식할 때 연장자 또는 최상급자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반찬을 집어먹는 놀라운 강심장의 직원들이 있다. 이때 상사, 동료, 후배 가릴 것 없이 할 수 있는 말은 제한되는데 기껏해야 “배가 많이 고팠나 봐”다.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이 수저를 들기도 전에 먼저 먹을 생각을 하느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특히 식사 자리에서는 눈치 좀 보자. 잘 모르겠다면 남이 들면 나도 들어라. 아직 우리나라는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2 상사의 사양은 사양이 아니다

[상황]

노래방에 갔다. 김 대리가 “부장님 한국 뽐으시죠!”라고 얘기했으나 상사는 “아니, 난 됐고, 여러분이나 즐겁게 노래해”라고 하신다. 이때 김 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곡 더 불러보겠습니다”라고 한다. “난 됐으니까 여러분끼리...”

속뜻: 상사가 돼서 모양 빠지게 시킨다고 냉큼 할 수 없잖아. 한 두어 번 더 권해봐. 마지못해 노래 부르는 것으로 그림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어.

오답: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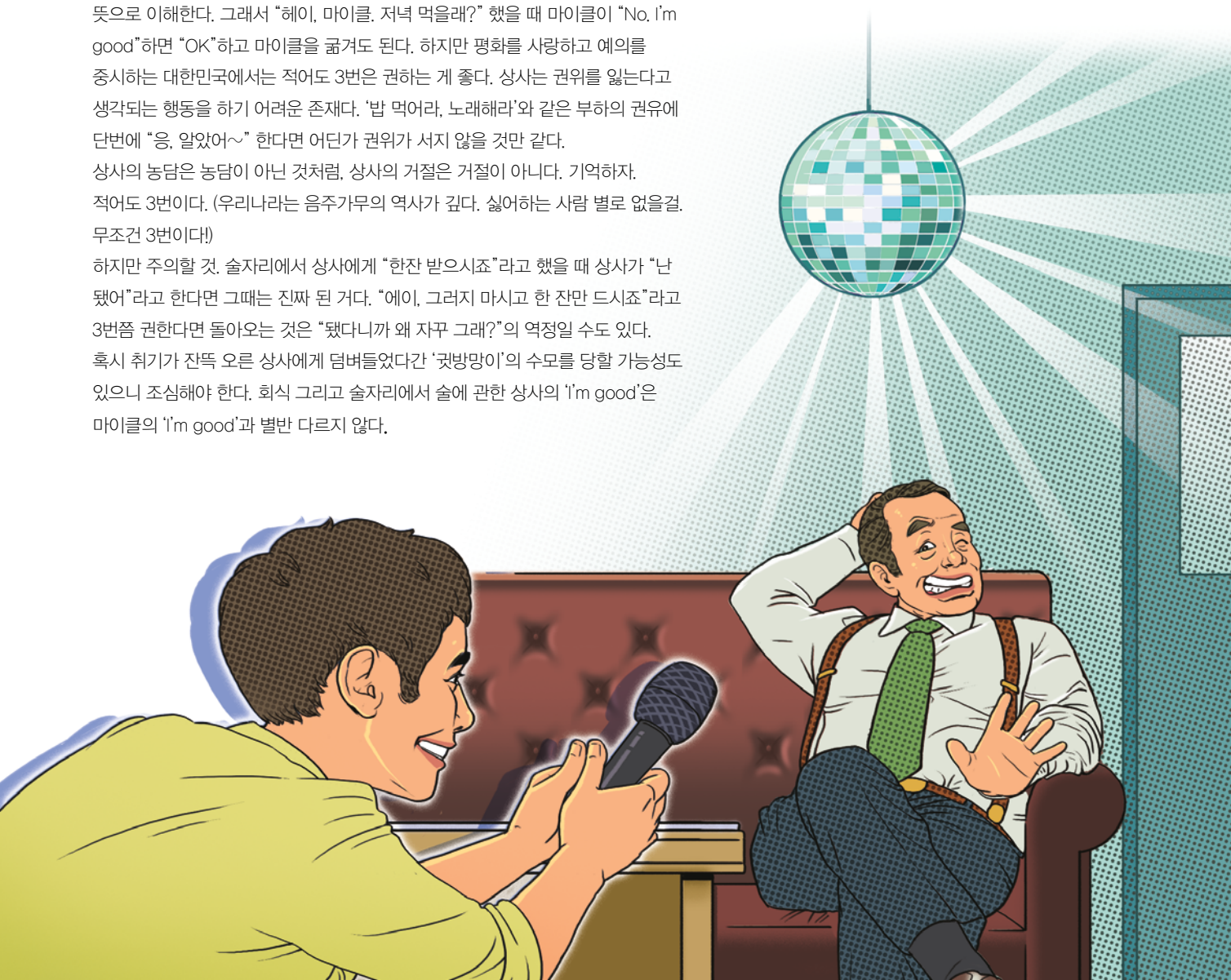
정답: 부장님의 노래 안 들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핵심 포인트 : 상사의 언어

- 난 됐고 = 되긴 뭐가 돼, 빨리 다시 권해 봐.
- 여러분들이나 = 나 안 끼워주면 약간 언짢을지도 모르겠군.

서양에서 'I'm good'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난 됐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헤이, 마이클. 저녁 먹을래?” 했을 때 마이클이 “No, I'm good”하면 “OK”하고 마이클을 굶겨도 된다.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3번은 권하는 게 좋다. 상사는 권위를 잃는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존재다. ‘밥 먹어라, 노래해라’와 같은 부하의 권유에 단번에 “응, 알았어~” 한다면 어딘가 권위가 서지 않을 것만 같다. 상사의 농담은 농담이 아닌 것처럼, 상사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다. 기억하자. 적어도 3번이다. (우리나라는 음주가무의 역사가 깊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걸. 무조건 3번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한잔 받으시죠”라고 했을 때 상사가 “난 됐어”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된 거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한 잔만 드시죠”라고 3번쯤 권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됐다니까 왜 자꾸 그래?”의 역정일 수도 있다. 혹시 취기가 잔뜩 오른 상사에게 덤벼들었다간 ‘킷방망이’의 수모를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화식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에 관한 상사의 'I'm good'은 마이클의 'I'm good'과 별반 다르지 않다.



3 여성의 의문문은 의문문이 아니다

[상황]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지치고 피곤한 유 대리.

소파에서 하루종일 시체놀이만 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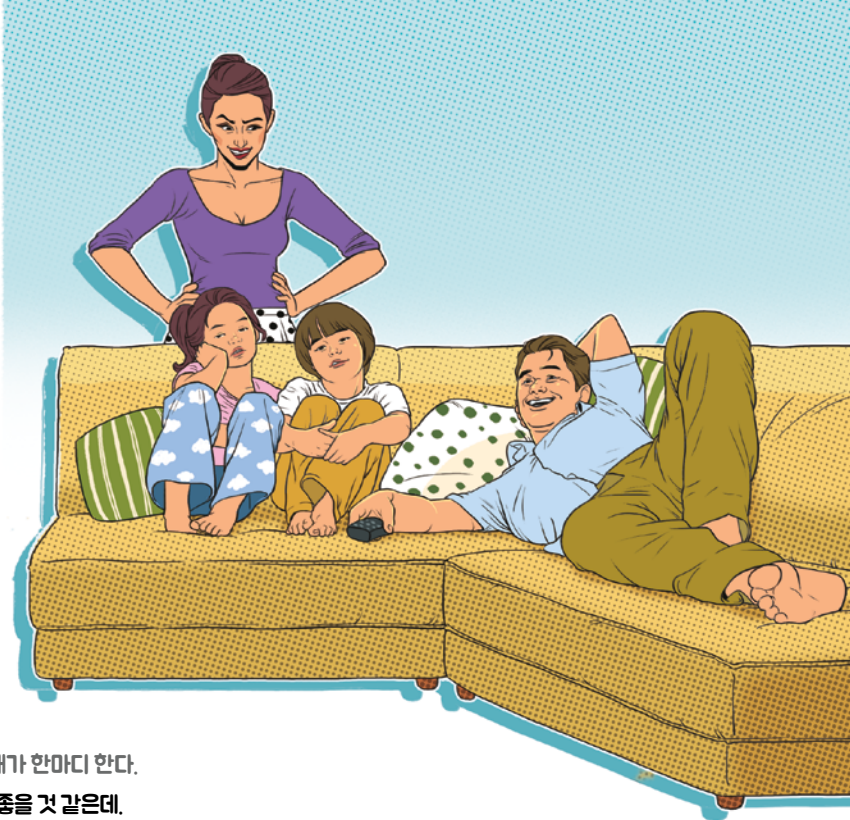
“여보, 애들 심심해 보이지 않아? 저녁 먹기 전에 좀 놀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말이니까 저녁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속뜻: 그러고 있지 말고 애들이랑 좀 놀아주다가 저녁에 외식하자. 애는 나만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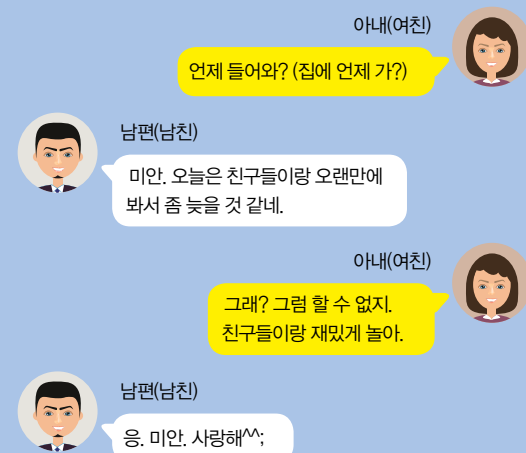
오답: 애들? 하나도 안 심심해 보이는데~ 밥은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정답: 알았어. 애들이랑 좀 놀고 있을게. 저녁엔 길 건너 새로 생긴 음식점에 가보자.



문장은 의문문이나 청유형의 형태이지만 그냥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애들하고 좀 놀아주면 안 돼? 외식하면 안 돼? 뭐 맛있는 거 먹을까?”에는 물음표가 붙어있지만 사실은 ‘애들하고 놀아줘! 외식하자!’처럼 느낌표가 붙은 문장이라는 뜻이다. 주말에 조금 쉬고 싶어도, 혼자 낮잠을 자고 싶어도, 일하랴 애 보랴 지치고 힘든 아내를 위해 주말에는 가사분담 또는 가사전담을 해보도록 하자. 없던 아침상을 얻게 되고 부실했던 메뉴가 보강될 것이다. 아내의 ‘Would you please~’, ‘Can you please~’, ‘You’d better~’은 가리지 말고 ‘You must~’로 알아듣자. 🇰🇷🇺🇸

TIP 아내 혹은 여자친구의 조건부 승인 잘 알아듣기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 한잔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밤이 늦었다. 아내(여자친구)가 살짝 걱정되려는 찰나 ‘딩동~’, 이런. 아내(여자친구) 메시지다. (← 왼쪽을 보라) 겉으로 보기에 이해심 많은 아내 혹은 여자친구가 남자의 우정 다지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을 다시 보자. 의미심장한 여섯 글자가 보이는가? ‘**그럼 할 수 없지**’ 여기에는 ‘친구들과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이 묻어있다. 이 여섯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할 수도 있다. 눈치 없는 남자들이여. 여기서 “애들아, 오늘 허락 받았다. 제대로 놀아보자~” 하면 게임 끝이다.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 귀가하는 게 당신의 간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우정은 웬만해선 깨지지 않지만 사랑은 때때로 연약하다. 기억하자. ‘그럼 할 수 없지’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화 <테이큰(Taken)>의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칼럼은 직장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힘들게 연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필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화승그룹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귀에서 가슴으로 입에서 귀로

아무리 가까이에서 말을 해도,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먼 곳에서 눈 한 번 찡긍하는데도 무엇이 필요한지 단박에 안다.
소통의 포인트는 거리가 아니다. 그 사람과의 교감, 그리고 배려, 그것이 잘 듣고,
잘 사는 방법이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화승R&A 조선기자재사업팀의
김종관, 윤세훈 사우를 만났다. 이어캔들링테라피를 통해 귀를 힐링하고, LP 가득한 공간에서
소리로 치유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화승R&A
조선기자재사업팀
윤세훈 사우

화승R&A 조선기자재사업팀
김종관 사우



우리는 늘 쉬고 싶다.
귀도 때론 쉬고 싶다.



한 살 차이 종관이와 세훈이. 화승에선 종관이가 선배지만, 사회에선 세훈이가 형인 그들은 화승에선 종관이가, 인생에선 세훈이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화승R&A의 신사업인 조선기자재사업팀으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종관이와 기능직 사원 세훈이. 누구보다 가까운 그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의 귀에 이어캔들링테라피를 선물하기로 했다. 조금은 낯선 공간, 각자의 침대에 누워 테라피가 시작된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캔들이 타들어가고, 귀 속엔 아로마 향이 자리한다. 깜빡 잠이 들 찰나, 20여 분의 테라피는 끝이 나고 귀의 노폐물도 함께 사라졌다. 이어캔들링은 아로마로 귀의 압박과 귀 내부의 막힘 현상을 경감시켜주고, 부드러운 열로 정신적 이완과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테라피를 받고 나온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웃었다.



잘 살아야 잘 산다.
잘 들어야 잘 산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주는 게 소통의 기본이라는 세훈이. 소통 스킬이 부족해 늘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종관이. 화승에 와서 화승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는 세훈이. 그 까닭에 화승은 더욱 자신에게 특별하다. 업무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조선업계 분들이 화승이 조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줄 때 뿌듯하다는 종관이. 화승R&A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셨던 어머님이 화승 입사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신 고마운 분이란다. 가슴 속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귀가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진 덕분인가.

귀를 쉬게 했다면, 이젠 좋은 노래를 들을 차례. 경성대 문화골목 노가다로 발길을 옮긴다. 벽면을 가득 메운 LP, 그리고 시대를 넘은 CD들이 손길을 기다린다. 평소 들국화 노래를 좋아하는 둘은 주저 없이 '걱정말아요 그대'를 듣는다. 소리는 입에서 나오지만 귀로 듣는다. 귀로 듣지만 가슴이 헤아린다. 공기가 될지 공해가 될지, 소리가 될지, 소음이 될지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서 거리를 좁히고, 그의 마음속으로 다가가는 것. 오늘 세훈이와 종관이는 하루를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간다. 그리고 배워간다. 🇰🇷

귀 전문 연구가
한국이침협회 부회장
이순문

귀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

귀는 태아가 자궁 속에서 맨 처음 갖는 감각기관이다. 신체 각 부위를 관장하는 혈이 500여 개나 분포되어 있어 귀 상태를 보면 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단다. 귀 전문 연구가 이순문 씨를 만나 평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체의 축소판, 귀

몇 해 전 MBN의 <천기누설>에 출연해 세 명의 귀를 살피고 간 기능 악화, 갑상선 기능 저하, 심장부정맥을 진단했던 이순문 씨. 이후 참가자들은 병원을 찾았고 실제 건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귀 모양만으로 건강상태를 살피는 근거가 궁금하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는 귀를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이 귀와 꼭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귓볼은 머리 부분에, 귀의 상단부위는 손과 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발상에 착안해 시작된 것이 ‘이침’입니다. 귀에 있는 혈 자리를 이용해 각종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 귀는 머리와 가깝기 때문에 혈이나 근육을 자극하면 뇌세포로 효과가 빨리 전달됩니다.”

귀의 특정 부위는 인체 각 부위에 대응되며 귀의 형태, 주름, 혈색, 돌기, 핏줄 등을 통해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살필 수 있다는 것. 만약 귀가 전체적으로 충혈 되어 있다면 혈액, 혈압,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 부위에만 충혈이 나

타난다면 그 부위에 대응되는 신체의 기능들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다. 귀지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단다. 귀지가 많다면 신체가 ‘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허증’이라고 한다. 심신이 극도로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

귀를 ‘귀’찮게 하라

이순문 씨가 귀에 빠져든 것은 15여 년 전 이침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부터다.

“어느 날 수영을 한 후 한 쪽 종아리 근육이 뭉쳤습니다. 마사지를 받아도 근육이 풀리지 않았는데, 지인이 이침을 놔주자 금세 풀리더라고요. ‘아, 이침은 무조건 배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침을 배우면서 자연스레 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어느덧 귀 전문 연구가로 거듭난 이순문 씨. 그가 말하는 귀의 성질이 흥미롭다.

“눈, 코, 입, 혀 등 얼굴의 다른 기관들은 내보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동시에 해서 음양의 속성을 모두 띠고 있죠. 하지만 귀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음의 기질을 띠었기 때문에, 우리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는 귀를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이 귀와 꼭 닮아 있기 때문이죠.



몸 중 가장 음에 가까운 장기인 신장이 주관한다고 해요.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청력이 떨어졌다면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꼭 이침을 맞지 않더라도 귀를 자주 자극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이명이 나타난다면 내장과 관련된 혈자리가 밀집한 귓구멍의 입구 부분을 자극하면 좋다. 한편 귀의 중앙 세로로 꼬리모양으로 크게 부풀어져 있는 부분을 대이륜이라 하는데, 척추에 해당된다. 귀의 위와 아래를 잡고 세모꼴로 접어 누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귀를 소중히 다루라

평소 귀 관리하면 떠오르는 건 귀지일 터. 귓속 청결을 위해 혹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귀지 제거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귀지는 귀지 선에서 분비되는 피부 기름과 각질이 합쳐서 생기는 것으로 외부 자극이나 세균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귀지를 억지로 파낸다면 외이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 후비게 되면 만성 외이도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귀지를 억지로 파낼 필요는 없지만, 귀지가 너무 많으면 외이도를 막아 난청, 외이도염, 고막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지가 오염된 물질과 섞이면 세균번식이 쉬우니 적당히 겉 부분에 나온 귀지는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면봉 등 부드러운 것을 이용하는 게 좋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성공 비결이라면, 귀를 소중히 다루고 자주 마사지하는 것은 건강 비결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적 혈 자리

① 신문점(神門点)

기가 출입하는 것을 주관하는 곳으로 향문 부위에 대응된다. 만성피로 시나 마음의 진정이 필요할 때 자극해주면 좋다.

② 신장점(腎臟点)

신장 부위에 대응되는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 등 귀 관련 질환의 완화에 좋다. 신장은 귀를 주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이다.

③ 위장점(胃腸点)

위장 부위에 대응되는 곳으로 소화불량 및 체기가 있을 때 이곳을 자극하면 좋다. 복부 비만, 위경련에도 좋으며 비염, 코골이 등 코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④ 심장점(心臟点)

심장 부위에 대응되는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혈액, 혈관 관련 질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장이 나빠지면 입안이 마르고 쓰다는 것을 참고할 것.



낭독으로 소통하라

솔바람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산새 지저귀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학이 우는 소리, 거문고 뜯는 소리, 바둑 두는 소리, 비가 섬돌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 하얀눈이 창박을 두드리는 소리, 차 끓이는 소리,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낭랑하게 글 읽는 소리.

이는 중국 송나라 때 학자 문절공 예사가 나열한 아름다운 소리들이다. 낭랑한 글 읽는 소리는 소리 자체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독서삼도(讀書三到)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독서삼도의 첫 번째는 마음이 도달해야 한다는 뜻의 심도(心到)로, 나의 생각과 정신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 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안도(眼到)인데, 글을 허투루 보지 말고 문맥과 문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구도(口到)로서, 처음 접한 그 글이 입에 올라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 일핏 보면 구도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은 정신을 집중시키는 심도와 문맥을 찾아가는 안도에도 해당된다. 의미는 소리를 따라오기 때문이다. 좋은 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뽀뽀이 살아 있는 반면, 나쁜 글은 비실비실 힘이 없어서 읽어도 소리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낭독은 그저 소리만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읽는 글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속내를 더 명료하게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면 언어의 기본 좋은 음률은 물론, 그 글의 흥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 글이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금세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게 저 나름대로의 리듬을 넣게 되는 것. 글을 읽을 때 머리와 몸을 흔들며 노래하듯이 읊다보면 저절로 흥이 생긴다. 이런 까닭에 한 사람이 같은 글을 읽더라도 내용에 공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그 소리는 매번 다를 수밖에 없다. 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인 소리 내어 읽기, 나와 텍스트의 진정한 소통이라 말할 수 있겠다.

나의 줄시 중에 〈의자〉라는 시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다. “허리가 아파서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의자가 있는 거여. 그래서 아픈 몸을 주저앉혔는데 허방이여. 헛것한테 홀린 거지. 넘어진 채 두리번거리려도 당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생각 하나로 골똥하니까 헛보인 거야.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 쫄 좋은 의자가 바로 땅바닥이여. 몸 성할 때는 길바닥이 의자고 이부자리인 줄 몰라. 아파봐라. 가시철조망도 등받이 의자고 고슴도치 등짝도 비단 요여. 아파야 눈이 떠지고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거.”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찌르르 시가 전류처럼 왔다. 2010년 11월 9일 새벽,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잠에서 깨었다. 몸이 이상했다. 침대와 천정 사이를 날고 있었다. 내가 분명했으나, 분명 내가 아니었다. 채 어머니로 변하지 않은 오른손이 쏟아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 이내 입술과 혀끝이 만들어내는 소리로 몇 번이고 손질하며 복기했다. 잠자리 에벌레인 학배기가 물속에서 열 차례 째 꼬리를 할 때, 그 작은 설렘과 놀라움은 익히 습관이 되어 있음으로 금세 물결 속으로 묻히리라. 배고픔만이 엄습하리라. 하지만, 햇살 좋은 늦여름 아침에 학배기로서의 마지막 껍질을 벗고 날개를 펼칠 때는 어떨까. 머리를 가우똥가우똥! 아무리 자신을 훑어보아도 학배기는 없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날개 때문에 물 거죽만 몇 번

낭랑한 글 읽는 소리는
소리 자체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독서삼도(讀書三到)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집었다 놓았다할 잠자리. 지난 물속 삶은 기억
저편으로 지워지고 하늘로 솟구치고픈 마음만이
쿵쿵거리리라. 그런 아침이 덜컥 찾아왔다.

2010년 11월 9일 새벽의 어리둥절함과 허둥지둥,
마로 놀던 몸과 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학배기가 잠자리로 탈바꿈할 때의 느낌이 딱 그러할
것이다. 알밤을 쏟아낸 밤송이에 눈보라 들이칠 때, 그
차가운 떨림이 그러할까. 몸이 날아오를까 걱정이
되어 베개를 껴안고는 엎드려 눈을 감았다. 내 등짝
무게로 날개를 구겨서 침대에 눌렀다. 옛 몸으로
돌아가려고 어둑고 무거운 생각을 불러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물속 학배기처럼 눅눅해졌다. 순간,
어머니의 육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뒤척일 때마다
한 편씩, 늙은 배우의 대사처럼 군더더기 없이 가슴에
박혀왔다. 허공을 지나는 낡은 유선 전화선이 뚝
끊어져서 귀에 처박힌 것 같았다.
‘ ’ 〈작은따옴표〉는 6과 9란 숫자가 원을 그리고
있다.
“ ” 〈큰따옴표〉는 66과 99란 숫자가 강강술래를
하는 것 같다.

6세에서 9세까지의 동그란 언어로 66세에서
99세까지의 우주의 말씀을 따오고 싶었다.

이정록

대학에서 한문교육과 문학예술학을 공부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지런히 시와 이야기를 짓는 작가이다. 시집 〈의자〉, 〈정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와 동시집 《콧구멍만 비쁘다》, 《저 많이 컸죠》를 냈다. 윤동주문학대상, 김달진문학상, 김수영문학상을 받았다

최대한 감정을 살려 맑고 또렷한 음성과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모음의 길이에까지 신경을 써 시를 읽어보자.
우리말의 아름다운 선율은 물론 글자 너머의 뜻까지 오롯이 느껴질 터. 잔잔한 배경 음악도 틀어놓고 탁자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분위기를 내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정록 시인이 추천하는 낭독을 위한 텍스트.

의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병·워·네]	이따가 짐 맞고 와서는 [만·고]
어머니 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차·외·바·테]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꽃·또]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따·리·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며 [안·자]	그것들도 직군테 의자를 내줘야지 [직·군·테]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크·내]	싸우지 말고 살아라 [사·라·라]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나 [조·은]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나·코]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조·코] [조·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내·놓·는]

어머니의 말에서 영감을 얻어 쓰게 되었다는 시. 허리가 고장 난 어머니가 몸을 치료하러 병원으로
향하면서 건넌 몇 마디가 시가 되었다.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고 자연과 부딪히면서 얻은 깨달음이 시를
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는 것. 어머니의 푸근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소리내어 읽을수록
흐뭇해진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시골밥상에 마주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은가.

뒷짐

짐 꾸리던 손이 작은 짐이 되어 등뒤로 얹혔다
[언·쳐·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임을
[소·중·한] [자·신·니·를]

이제야 알았다는 듯, 꺾발 조이던
[끈·빨]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안았다
[완·소·느·로] [감·싸] [아·나·때]

세상을 거머쥐려 나돌던 손가락이
[세·상·을] [손·까·라·기]

자신의 등을 넘어 스스로를 껴안았다
[자·신·의] [등·을] [나·에]

젊어서는 사린 게 가슴뿐인 줄 알았지
[잘·머·서·는] [아·라·찌]

등뒤에 양손을 얹자 기댈 곳 없던 등허리가
[언·찌] [기·댈] [엎·편]

아기처럼 다소곳해진다, 토닥토닥
[다·소·고·태·진·다]

낮은 언덕의 어깨 위로 억새꽃이 훑날리고 있다
[억·새·고·치] [흔·날·리·고]

구멍 숭숭 뚫린 뼈마디로도
[뚫·린]

아기를 잘 업을 수 있는 것은
[여·불]

허공 한 채를 업고 다니는 저 뒷짐의
[업·고] [뒤·찌·미/뒀·찌·미]

등근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겠는가

밀쳐놓은 빈손 위에
[빈·손]

무한 천공의 주춧돌이 가볍게 올라앉았다
[주·춧·돌/주·출·돌] [올·라·안·자·때]

간혹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마음이 쓰라리다면, 뒷짐을 저 등허리에 올려놓아보자. 시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본다면 닫힌 마음이 열리고 내 안의 욕심도 누그러질 것이다.
시인의 시선은 몸으로 세상을 익혀서,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농부의 마음을 꼭 닮아 있다.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본다면, 세상의 흐르는 이치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펴뜩 깨닫게 된다.

봄비 내린 뒤

개 밥그릇에

[개] [밥끄르세]

빗물이 고여 있다

[빈물]

흙먼지가

[흙먼지개]

그 빗물 위에 떠 있다

[빈물]

햇바닥이 닿자

[햇바닥/햇바닥개] [달짜]

말장개 자리를 비켜주는

[말가개]

[비켜주는]

먼지의 마음, 위로

통통 분 밥풀이

[분] [밥풀]

따라나온다

찰보동 찰보동

맹물 넘어가는 저 아름다운 소리

[내머가는]

뒷간 너머,

[뒤간/뒤간]

개나리 꽃망울들이

[개나리] [꽃망울드리]

노랑게 귀를 연다

[노랑게]

[연다]

밤늦게 빈집이 열린다

[밤늦게] [빈집]

누운 채로, 땅바닥에

[누운]

[땅바닥]

꼬리를 치는 늪은 개

[늪은] [개]

밥그릇에 다시

[밥끄르세]

흙비 내린다

[흙비]

봄비

오늘 내리는 봄비는

[봄비]

안개비라서 보슬비라서

[안개비]

도랑까지 흘러가지 못합니다.

[흐릅니다]

병아리 눈곱만큼 내려서

[눈곱]

쥐구멍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내

땅만 굽어보던 봄비라서

[굽어보던] [봄비]

씨앗의 머리는 툭툭 정확히 맞습니다.

[씨앗]

[정확히] [맞습니다]

늦잠 자는 개구리 이마는 간질간질 잘도 맞습니다.

[늦잠]

[맞습니다]

땅속 씨앗과 개구리에겐

[땅속] [씨앗과]

오늘 내리는 빗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빗소리]

개구리가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씨앗의 귀청이 새파랗게 터집니다.

[씨앗]

[새파랗게] [터집니다]

개가 물을 먹는 소리를 '할짝할짝'도 아니 '찰보동 찰보동' 표현한 시인. 참 정겹고 예쁜 운율이다. 적절한 심포는 시의 리듬감 또한 살려주고 있다. 장음을 살려 읽으면 리듬감은 더욱 배가되어 우리말이 훨씬 더 예쁘고 정겹게 들린다. 누워서 꼬리칠 정도로 눕고 게으른 개, 개의 유유자적한 모습이 한 눈에 그려진다.



보슬보슬 내리는 모양새라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눈을 감으면 봄을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씨앗의 머리를, 개구리의 이마를 툭툭 건드리는 봄비. 제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제 아무리 작은 희망일지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으로 메아리친다는 것. 이는 우리가 세상의 낮은 소리에 좀 더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일 것이다. 🇰🇷

※ 낭랑한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자부한다면, 주저 말고 목소리 재능기부에 도전해 보세요. 당신이 또렷이 읽어내는 한 음절, 한 음절이 단비가 되어 그 누군가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 줄 것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http://hsb.or.kr>) 및 버담소리(<http://cafe.naver.com/lovebudamsori>)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낭독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현대인의 취향을 저격하다

음악 대신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듣는 길거리 이어폰족이 늘어나고 있다.
1인 미디어의 대표주자, 팟캐스트에 빠진 사람들이다.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시시콜콜한 낚두리로 무장한 팟캐스트는
대중의 '취향 길러'로 빠르게 발돋움하고 있다.



아이팟은 팟캐스트의 어머니?

조금 딱딱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다. 팟캐스트의 역사와 의미에 관한 이야기다.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알아두면 팟캐스트가 화두로 던져졌을 때 아는 척까지 덤으로 할 수 있는 알짜배기 내용이니 불평 말고 읽어두자.

팟캐스트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오디오 형식의 방송이다. 애플의 아이팟과 방송의 합성어로, 2004년 영국의 기술칼럼니스트 벤 해머슬리가 처음 언급한 뒤 널리 퍼졌다. 여기까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 허나 왜 벤이 아이팟에 이토록 주목을 했는지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2000년대 초, 초창기 팟캐스터들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퍼뜨릴 것인가에 대해 골몰했다.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에 팟캐스트를 올린 뒤 검색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도록 하는 수동적 방식으로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것.

이때 생각해낸 방법이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아이팟과 음악 관리 서비스 아이튠즈의 오디오 파일 동기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팟캐스터들은 이 기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었고, 아이팟 사용자들도 원하는 팟캐스트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 벤은 이러한 1인 미디어의 독특한 콘텐츠 유통 방식에 주목, 아이팟을 팟캐스트의 조어로 활용한 것이다. 애플은 이에 발맞춰 2005년 6월, 팟캐스트 섹션을 선보임으로써 '배포-구독'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팟캐스트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앞서 살펴봤듯, 팟캐스트와 여타 미디어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는 콘텐츠 유통 방식이다. 기존의 대중매체는 방송사에서 편성한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하는 제작자 중심의 유통 구조였다. 그런데 팟캐스트는 이를 완전히 뒤집어 놔다. 팟캐스터들이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대중들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팟캐스트를 골라 구독하고 즐길 수 있다. 댓글을 통해 제작자와 소통하며 팟캐스트의 내용과 방향까지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팟캐스트는 '이용자 친화적인 21세기형 방송 플랫폼'인 것이다.

팟캐스터들이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대중들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팟캐스트를
골라 구독하고 즐길 수 있다.

내 맘대로 팟캐스트 TOP5

팟캐스트 초심자라면, 이쯤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아니, 7,400개나 되는

팟캐스트 중에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팟캐스트 터미 속에서 꼭 들어야 할 팟캐스트라고 감히 외쳐본다.

영화 분야 | 씨네타운 나인틴

SBS 라디오국과 뉴미디어국에 속한 세 명의 PD가 진행하는 영화 소개 팟캐스트다. 작년 5월부터는 한국 사회의 이슈와 영화 이야기를 1, 2부로 나누어 방송한다. 거침없이 내뱉는 멘트들은 강력하지만 자질스럽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 한 마디로 속 시원한 영화 소개 방송.



뉴스 분야 | 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의 기자수첩’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코너 중 하나로 한 회당 10분 내외의 방송이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짚어냄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도서 분야 |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나는 꼼수다’보다 1년 3개월이나 빨리 시작된, 팟캐스트의 조상님뻔 되는 방송이다. <살인자의 기억법>, <검은 꽃> 등을 지은 김영하 작가가 직접 제작·녹음·편집·업로드까지 도맡아 한다. 업로드 주기가 일정치 않고 점점 더 길어지고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손꼽아 기다려지는 방송이다.



패션 분야 | 복식남녀

패션업계에서 종사하는 네 남자가 진행하는 유쾌한 패션 이야기. 여자가 하나도 끼여 있지 않다는 것에 한 번 놀라고, 남자들끼리 이토록 다양한 옷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음에 또 한 번 놀라는 방송이다. 유행의 속도만큼이나 업데이트 주기도 3~4일로 매우 빠르다.

취미 분야 | 지대넬알(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뭐라 정의하기 힘들어 스스로 취미 카테고리로 향한 상식 전달 팟캐스트.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잡다한 상식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네 사람이 모여,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전해준다. 이야기 도중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유쾌함이 화룡점정. 인기에 힘입어 책으로도 발간, 베스트셀러 반열에도 오른 방송이다.



팟캐스트의 이유 있는 고공 행진

2011년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대히트로 우리나라에도 팟캐스트 열풍이 불었다. 아이폰즈와 더불어 안드로이드 기반의 팟캐스트 플랫폼이 잇달아 선보이면서, 팟캐스트 운영자와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월 기준 국내 최대 팟캐스트 사이트인 ‘팟빵(www.podbbang.com)’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팟캐스트는 무려 7,400여 개, 이용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팟캐스트는 왜 이렇게 구름 청중을 몰고 다니는 것일까. 먼저 팟캐스트는 쉽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든 감상이 가능하다. 게다가 약간의 데이터 이용료만 감수한다면 거의 모든 팟캐스트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뉴스 및 정치·도서·영화·음악·스포츠·건강 및 의학 등 원하는 분야의 방송을 골라 들을 수 있다. 팟캐스트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른바 ‘듣는 문화’의 힘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팟캐스트 한 편을 녹음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제작도 간편하기 그지없다. 자신만의 지식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

기에 최적화된 콘텐츠인 것이다. 듣는 이에게도, 제작하는 이에게도 편의와 행복을 전하는 팟캐스트. 이러니 우리가 어찌 이 녀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붉은 원숭이해에도 대세는 팟캐스트

일종의 대안 미디어였던 팟캐스트는 이제 대중매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오히려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팟캐스트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일부 인기 높은 팟캐스트는 책으로 나오거나 비디오 팟캐스트, 생방송 팟캐스트 등으로 형식을 바꾸며 더 널리 사랑 받고 있다. 여자의 변신이 그러하듯, 팟캐스트의 변신도 무죄다.

물론 팟캐스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이용자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 분야의 팟캐스트가 순위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편중 현상과 더불어 일부 방송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보 전달 행태는 팟캐스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는 2016년 붉은 원숭이해에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몇 년간 이어진 이 질주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분명 한 것은, 팟캐스트는 끊임없이 진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이다. 🇰🇷

강진우
글과 사진으로 세상을 맛깔나게 기록하는 작가 겸 자유기고가.
소설 <선물>, 자기계발서 <칼럼니스트로 먹고살기(공제)>를 썼다.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소리들

바삭바삭, 지글지글, 보글보글, 쓱싹쓱싹
맛있는 소리가 청각을 자극하니 입 안 가득 침이
고인다. 맛 또한 기대했던 그 이상이다.



바삭바삭
서교동 하노이바게트

한국에서 쌀국수 이외의 색다른 베트남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반미'가 있다. 반미는 베트남식 바게트를 반으로 갈라 소스를 바르고 고기와 채소 등 각종 속 재료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에 의해 소개된 빵에 베트남 고유의 식재료로 속을 채워 먹는 것에서 시작됐다. 호주에서 요리 전공 후 유명 호텔 요리사로 근무 하던 하노이바게트 주인장은 유학시절 즐겨먹던 반미의 맛을 잊을 수 없어 직접 가게를 차렸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직접 구운 바게트. 잘 익은

바게트를 반으로 갈라 닭간으로 만든 파테를 살짝 바르고 절인 무, 당근 양파, 고수 등을 넣은 후 포크, 치킨 미트볼 세 가지 중 마음에 드는 메뉴를 더한다. 고수는 취향에 따라 빠도 무방하지만 베트남 고유의 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넣어 먹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 바게트에 비해 껍질이 얇고 절인 무의 아삭함이 더해져 한 입 베어 물면 바삭바삭한 소리와 함께 양념된 고기의 풍미가 입 안 가득 퍼진다.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60
문의 02-6401-9055



지글지글
신사동 불칸

〈불칸〉의 메뉴만 보았을 땐 별로 특별한 것을 못 느꼈지만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가게의 '무기'는 뜨거운 철판. 300도까지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에 함박 스테이크가 담겨 나오는데 그 위로 특제 소스를 부으니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절로 침샘을 자극한다. 물론 철판은 금방 식기 때문에 10초 정도가 지난 후 바로 먹어도 괜찮으나, 소스가 지글거리는 동안 옷에 튈 수 있으므로 냅킨으로 옷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 강력한 온도에 소스의 수분이 증발하고 약간 질퍽해진 소스에 고기를 찍어 먹으면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즐거워진다. 맛과 함께 양도 잡았다. 여성 혼자서 먹기에는 꽤 많은 양이지만 혹시나 조금 부족하다면 기본 함박 스테이크와 함께 취향에 따라 달걀프라이, 베이컨, 어니언, 치즈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먹을 수 있다. 한국식 입맛이라 고기와 소스가 느끼하다면 수제 상그리아를 곁들이는 것도 불칸에서의 팁이다.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5길 11
문의 02-542-6423





바삭바삭 바게트
지글지글
함박스테이크
보글보글
김치찌개
쓱쓱쓱 비빔밥



보글보글 해운대좌동식당

부산 좌동에 위치한 좌동식당에서는 엄마가 끓여주는 보글보글 김치찌개, 바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식당이다 보니 주변에 거주하는 배고픈 주민들에게는 참 고마운 존재이다. 주 메뉴는 삼겹살과 '쌈 싸먹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보기만 해도 열큰한 김치찌개 한 냄비가 푸짐하게 나오면 보글보글 한 번 더 끓인다. 국물 한 숟갈 떠서 먹으니 김치와 마늘향이 잘 배어있어 개운하고 깔끔하다. 특히 김치찌개 속 굵게 썰어 익힌 돼지고기는 아들이들하고 누린내가 없어 그 맛이 일품이다. 돼지고기 하나 집어 쌈 싸서 먹는데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밥 한 공기 푹딱하고 아쉬워 추가 주문하려고 할 때쯤 사장님의 아들이 들어왔다. 하고 후 배고픈 중학생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니 좌동식당의 엄마 손맛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짐작이 된다.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81

문의 051-704-0877



쓱쓱쓱 기장마침식당

냉장고 속 남은 반찬을 양푼에 모조리 쏙고 고추장에 참기름 넣어 쓱쓱쓱 비벼 먹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터. 개인적으로 대학시절 돈 없어 자주 먹던 인간미 넘치는 비빔밥 대신 바닷가 주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급(?) 비빔밥을 소개해보려 한다. 부산 일광면에 위치한 <미청식당>은 '양장구밥'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양장구는 부산 사투리로 성계를 일컫는다. 흔히 우리가 먹는 성게알 비빔밥은 노란 빛깔의 성계를 넣는데다 양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미청식당>의 양장구밥은 조금 특이하다. 일반 성게알과 함께 주홍빛의 말뚝성게알을 한 가득 넣는 것이 특징. 일반 성게알과 달리 구하기 어렵고 비싼데 매일 아침 해녀에게서 공수해온다. 말뚝성게알 덕분에 비빔밥에서 바다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밥을 비빌 땐 성게알이 많이 뭉개지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비벼야 한다. 누가 기장에 있는 식당 아니랄까봐 밑반찬으로 특산물인 미역과 멸치 반찬이 깔린다. 소위 해산물파 식객에겐 천국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주소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77-43

문의 051-721-7050





세상에 행복을 퍼트리는 특별한 치유캠프

WATA, 그리고 민들레 효과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하면 시련과 좌절이 되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흔히들 '행복'이라고 한다. 매년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진행되는 행복 전파 캠프, 와타가 2016년 1월의 끝자락, 인천 강화도에서 진행됐다.



행복의 출발, 웃음에서부터

장애-비장애 아동 형제들의 행복을 위해 시작된 세계예술치료협회의 캠프가 어느덧 14회째를 맞았다.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장애아동과 함께 지내는 비장애 형제,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형 프로그램이 와타 캠프의 특징. 특히 겨울 캠프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형 치료 프로그램은 물론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다보니 다소 고령(?)의 즐거운 웃음들을 목격할 수 있다. 평소 한시도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못했던 부모들은 와타 동계 캠프를 통해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참가한 봉사자들의 웃음도 만만치 않다. 활기찬 아이들을 따라다니느라 체력 소모가 큰 봉사지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없던 힘도 솟아난다고 한다. 캠프가 끝나면 몇몇 봉사자들은 몸살까지 앓는다지





WATA의 진심어린 꿈이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처럼 널리 알려져
지금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해본다.



만 웃고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가족들의 모습이
피곤을 말끔히 씻어준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캠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이다.

눈물이 나도 록 그림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예술치료협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들은 볼거리로 가득하다.
마술공연, 무용치료, 미술치료 등 와타 캠프에는
형형색색의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참 많다. 호기
심 많은 아이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봉
사자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봉사자
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 그렇게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급속도로 정이 들다보니 헤

어져야하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진다. 봉사자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너무 행복했기에 더욱 아쉬움이 커진 짝꿍들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가슴
속에 담아간다. 캠프에 참여한 부모님들 역시 다
른 가족과의 색다른 소통을 통해 눈물을 흘리기
도 한다. '플레이백 시어터(Playback theater:관
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배우들에 의해 연극으로 재연되는 즉
흥연극)'를 통해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의 고통 그
리고 행복을 공감하면서 가슴 속에 쌓인 자신들
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조금은 특별한 가족들의 사연들을 통해 봉사자
로 참여한 배우들 역시 즉흥연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한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캠프가 되길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가족들을 선발하는 데 있
어 서현정 대표는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은 물론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캠프인
만큼 지난 2009년 1회 여름 캠프의 시작과 함께
전국의 장애 아동 가족들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와타 캠프는 순식간에 소문이 났다. 이에 매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한 가족들의 경쟁도 치열하
다.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참가 가족을 모집했
지만, 이번 캠프부터 기준을 바꿨다고 한다. 새로
운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과거부터 와타
에 참여해왔던 몇몇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웠다고.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
을 도심 한복판에 만들어 편견없는 행복한 사회
에 다가가는 것이 꿈이라는 세계예술치료협회.
이들의 진심어린 꿈이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처럼 널리 알려져 지금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해본다. 🇰🇷





2015 화승그룹 송년인사회
“당신은 자랑스러운
화승사람입니다”



화승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015 화승그룹 송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그룹사 임원 및 팀장급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2015년 회사별 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 계열사별 이슈 등이 발표됐다. 또한 신입 임원 소개, 장기근속 임원 시상상을 통해 화승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인물들이 서로의 성과를 다독이며 격려하였다.

행사는 특별 초청 강연으로 시작됐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에의 실제 모델인 서희태 지휘자가 ‘마에스트로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화승그룹 임직원들은 서희태 지휘자의 ‘소통경영전략’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승그룹 신입사원들로 구성된 퍼포먼스팀이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다소 진지하게 진행되었던 기존의 행사 구성



에서 벗어나 젊은 직원들이 화려한 공연을 펼친 것이다. 공연 뿐 아니라 ‘화승골든벨’ 등의 다양한 이벤트로 행사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밖에도 화승인터스트리 김명곤 부사장 등 신입 임원 5명의 소개와 함께 화승비나 이상대 상무이사의 30년 장기근속 축하상 등 자랑스러운 화승사람들의 소개도 이어졌다.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회사를 위해 달려준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16년은 사람과 기술의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내실 위주의 경영,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화승그룹의 미래를 함께하자고 당부하였다.



“3.4℃, 더 따뜻해졌습니다”

화승그룹, 이웃돕기 성금·성품 3억 원 부산공동모금회 전달



화승그룹은 지난 1월 7일 3억 원 가량의 성금 및 성품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부산 지역의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1억 원과 2억 원 상당의 신발 및 의류 등을 지원한 것. 이날 화승그룹의 지원으로 인해 ‘부산사랑의열매’ 사랑의 온도가 ‘3.4℃’ 올랐다고 한다.

전달식에 참석한 화승네트웍스 배태균 사장은 “부산 향토기업

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정택 회장은 “부산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뜻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화승그룹은 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 화승 꿈틀 프로젝트 등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당신의 영화 관람이 환아들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화승그룹, 영화 <레터스 투 갓> 후원 참여



백혈병 소아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산CBS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그리고 화승그룹이 힘을 모았다. 화승그룹은 부산CBS, 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지난 2월 2일 화승그룹 회의실에서 백혈병 소아암 환아와 가족 후원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CBS시네마에서 수입 개봉하는 영화 <레터스 투 갓>의 영화 관람 홍보를 위한 것.

레터스 투 갓은 소아암에 걸린 8살 소년이 하늘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감동 실화다. 영화 수익금의 일부는 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기부된다. 화승그룹 현지호 총괄부회장은 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후원회장으로서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의 후원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이번 협약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영화 <레터스 투 갓>은 2월 25일 전국 동시개봉하였다. 🇰🇷

NEWS



화승그룹

저성장 시대, 화승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현지호 총괄부회장 주관 경영정책 설명 간담회

지난 2월 화승R&A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현지호 총괄부회장 주관으로 경영정책 설명 간담회가 열렸다.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회장실 팀장 이상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전략 -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저성장 시대, 화승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지호 부회장의 강연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짚어보다

2016년 임원 화요특강 실시

지난 2월 16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화승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화승그룹 임원 화요특강 1회차 강연이 열렸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자동차산업연구원 조철 실장이 함께했다. 조 실장은 감성품질의 구현, 친환경 이미지 부각 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수준 높은 강의를 펼치며 특히 화승그룹 자동차부품사업군 담당 임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15년부터 실시된 화승그룹 임원 화요특강은 연중 6회에 걸쳐 각계각층의 주요 강사들의 초빙 강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화승R&A

새로운 지붕을 선물합니다.

화승R&A,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지원

화승R&A는 지난 3월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현장시연 및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경상남도와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MOU를 체결,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화승R&A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승엑스월

'차별화는 지속적인 소통에서 올 것'

화승엑스월, 2016 사업계획 워크샵 개최

화승엑스월은 지난 2015년 12월 11일부터 1박 2일 간 양산 에덴밸리에서 2016년 화승엑스월 사업계획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2016년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관련해 초청강연을 통한 2016년 경제 전망을 임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한편, 각 사업팀별 2015년 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변수강 대표이사는 워크샵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미래수익 창출을 위한 신시장 및 신사업 발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NEWS

그룹 임원 인사

승진

대표이사 부사장

• (주)화승T&C 이정두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이사

- HS VINA 김수상 상무이사
- HS VINA 김준규 상무이사
- HS VINA 신창훈 상무이사

이사

- HST 권태곤 이사
- (주)화승R&A 강병기 이사
- (주)화승R&A 임팔수 이사
- (주)화승R&A 전현호 이사
- (주)화승R&A 정호도 이사

이사부장

- HSB 김철령 이사부장
- HSI AUTO 이우균 이사부장
- HST 최정두 이사부장
- HS VINA 김형주 이사부장
- HS VINA 윤종현 이사부장
- HS VINA 이혁근 이사부장
- HS VINA 전영병 이사부장
- HS VINA 황풍은 이사부장
- (주)화승R&A 이동훈 이사부장
- (주)화승T&C 오세운 이사부장
- (주)화승소재 김병석 이사부장
- (주)화승인더스트리 이찬호 이사부장
- (주)화승인더스트리 정한수 이사부장
- (주)화승엑스월 김중우 이사부장

전보 및 겸직

이봉호 전무이사

(주)화승인더스트리 경영관리담당
→ (주)화승인더스트리 관리총괄담당

김승희 상무이사

(주)화승R&A 영업1본부장, 기술연구소장,
중국해외법인 총괄법인장 → (주)화승R&A
SL사업본부장, SL생산기술담당

김형진 상무이사

(주)화승R&A 영업2본부장, 미주해외법인
총괄법인장 → (주)화승R&A 영업본부장,
미주해외법인 총괄법인장, 중국R&D센터
및 영업본부 총괄

권오희 이사

(주)화승R&A 생산기술본부장 → (주)화승R&A
품질본부장, FL품질담당, (주)화승소재
품질담당

권태곤 이사

HST 법인장 → 중국해외법인
총괄법인장(HST, HSB)

박재영 이사

(주)화승인더스트리 경영지원담당
→ (주)화승인더스트리 경영관리담당

이종강 이사

(주)화승R&A 품질본부장, SL품질보증실장
→ (주)화승R&A FL사업본부장

임팔수 이사

(주)화승R&A, (주)화승소재, (주)화승T&C,
(주)화승공조 재경담당 → (주)화승R&A,
(주)화승소재, (주)화승T&C, (주)화승공조
재경총괄

전현호 이사

(주)화승R&A SL생산담당, P실장 →
(주)화승R&A 정보화지원담당

정호도 이사

(주)화승R&A, (주)화승소재, (주)화승T&C,
(주)화승공조 경영지원담당 → (주)화승R&A,
(주)화승소재, (주)화승T&C, (주)화승공조
경영지원총괄

황기영 이사

인도법인총괄법인장(HSI AUTO, HSMI,
HSNI) → (주)화승R&A 생산본부장

김병석 이사부장

(주)화승소재 생산지원팀장 → (주)화승소재
생산/설비 담당, 생산지원팀장

김철령 이사부장

HST 부법인장 → HSB 법인장, 중국
영업본부장

손승용 이사부장

(주)화승소재 개발영업담당 → (주)화승소재
영업본부장, 해외영업담당,
해외법인영업총괄(HSR, HSMI)

오세운 이사부장

(주)화승R&A 회계팀장, (주)화승소재
재무팀장 → (주)화승T&C, (주)화승공조
관리담당

윤우원 이사부장

(주)화승소재 생산/기술/설비담당 →
(주)화승소재 연구개발본부장

이기영 이사부장

(주)화승R&A SL연구담당 → (주)화승R&A
SL설계개발담당

이동훈 이사부장

(주)화승T&C 부품사업부 실장 → (주)화승R&A
SL품질담당, SL품질보증실장

이우균 이사부장

HSTR 법인장 → HSI AUTO, HSNI 법인장

이혁근 이사부장

(주)화승인더스트리 인사·총무 부장 → HS
VINA 관리담당

최정두 이사부장

중국R&D센터 센터장 → HST
설계개발담당, 중국R&D센터장

신임

김도형 상무이사

HS VINA (리브 개발)

COMMUNICATOR

DBT총괄 화승그룹홍보팀

김병호 차장

화승그룹홍보팀 심일욱 대리

화승R&A 황지희 (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
(개발영업1팀 대리)

화승T&C, 화승공조 이재훈 (관리팀 사원)

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대리)

화승엑스월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대리)

화승인더스트리 송재광
(총무팀 매니저)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과장

중국 HST 김성우 과장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이어져야 할 것들 중에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송두월

인연입니다. 우리가 온기 가득한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따뜻한 사람냄새를 느끼기가 어렵네요.

차상래

할머니와의 교감. 할머니가 손수 차려주신 밥상과 구수한 사투리로 들려주시는 옛이야기는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교감은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계속 이어져야겠죠?

이현희

나와 우리, 이 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를 존재토록 하는 가족이야말로 그 첫 번째가 아닐까요? 사랑, 희생, 질서, 예의, 배려, 믿음, 감사, 소통의 가치가 가족에서 비롯되니까요.

김옥희

‘한지’를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의 김치 맛(특히 고들빼기 김치는 정말 기가 막히죠!)은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경숙

사랑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 때문에 울고 웃죠.

송국화

옛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곳에서도 옛것을 지키고 소실을 막아 후대에 귀중한 자산으로 남겨졌으면 합니다.

김기창

자식들의 발길이 오래도록 이어져야 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가족들의 정과 관심이 그리울 텐데, 자식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어 섭섭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올해부터는 고향을 발길을 늘려야겠습니다.

조한석

최초, 처음을 담은 기억들. 첫사랑, 첫 회사 및 처음으로 아빠가 됐을 때의 그 설레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오래도록 이어져야 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배명희

“엄마, 엄마! 저게 뭐야?” 추운 날씨에도 나가 놀자는 아들 성화에 못 이겨 나들이를

갔습니다. 추위 탓에 코끝까지 빨개졌지만 얼굴에는 연신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은 보기만 해도 힘을 나게 해줘요. 내 인생의 활력소, 아들의 미소는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화

우리의 가락이 아닐까요? 현대음악의 빠른 리듬이나 품위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서구 클래식 음악의 사이에서 고유의 우리 정서를 대변하는 우리 가락이 꼭 이어졌으면 합니다.

■ 2015년 화승그룹 사보 <DBT> 겨울호 독자엽서 당첨자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오혜인(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김기학(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차민준(전남 순천시
서면 입석길)

백채란(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이지현(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송두월(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차상래(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이현희(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김옥희(대전시 중구
태평로) 전경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김기창(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곡리)
배명희(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송국화(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조한석(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홍준화(충남 아산시 남부로)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1,50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6년 3월 31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